

리아후나



특집호: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회원들에게 주는
선지자의 권고

모든 회원들이 알기를
바라는 것, 10쪽

열 가지 새로운 전통, 26쪽



“최근 침례 받으신 여러분께
축하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신 것은 얼마나
훌륭한 첫 발을 내딛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밝힌다.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교회의
새로운 회원들에게”, 2쪽.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공식 잡지인
제일회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톨 페리,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러드, 조셉 비 위스리, 리처드 지 스크트, 로버트 디 해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편집인: 제이 이 젠슨
고문: 몬티 제이 브라프, 게리 제이 콜먼, 요시히코 가무찌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스네호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 편집인: 제니퍼 엘 그란우드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아담 시 율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렛

편집 스태프: 린다 스탈 쿠퍼,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라렌 포터 고트, 캐리 카스텐, 멜빈 레빗, 샬리 제이 오데커크, 주디스 엠 팔러, 비버안 폴슨, 리처드 엠 톨나, 제니퍼 로즈, 크리스티 루시, 돈 엘 셀, 로저 테리, 제넷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델, 킴벌리 엘

선임 비서: 모니카 엘 디킨슨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벤 캠펠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타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캘리 알 아로요, 콜레트 네베카 오온, 브리트니 존스 빙,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렛,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비, 랜달 제이 픽스톤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크
배우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슨

통 권: 제 487호, 제 43권, 제 10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6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우광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ward/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liahona@ldschurch.org**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서모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힌디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양함)

© 2006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October 2006 No. 10. LIAHONA (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성인

- 2 제일회장단 메시지: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교회의 새로운 회원들에게 고든 비 힝클리 회장
- 6 복음 안에서 기뻐함
- 10 모든 새로운 회원들이 알고, 모든 오래된 회원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을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 17 사랑하는 가족, 다른 믿음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
- 25 방문 교육 메시지: 신권 축복을 받으라
- 26 새로운 회원, 새로운 전통 에프 멜빈 하몬드 장로
- 30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배우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음 잰 핀보로우
- 36 도전에 맞섬 래리 힐러
- 40 후기 성도의 소리
 육교 아래의 신앙 그레그 칼슨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겠어 올레그 바라바쉬
 나를 위한 바로 그곳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라라 에르난데스
- 44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차드 엠 롬니와 빅터 디 케이브
- 48 도움이 되는 용어

10 모든 새로운 회원들이 알고, 모든 오래된 회원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을



이번 호 리아호나 독자들을 환영하며

여러분이 최근 개종자라면 ...

이 잡지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영감과 사랑이 깃든 권고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회원으로서 겪고 있는 것들을 이미 경험한 일반 회원들의 조언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보와 영감을 구하고자 이번 호를 참고할 때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참되다는 영의 증거를 받았지만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바뀌어야 할 일부 생활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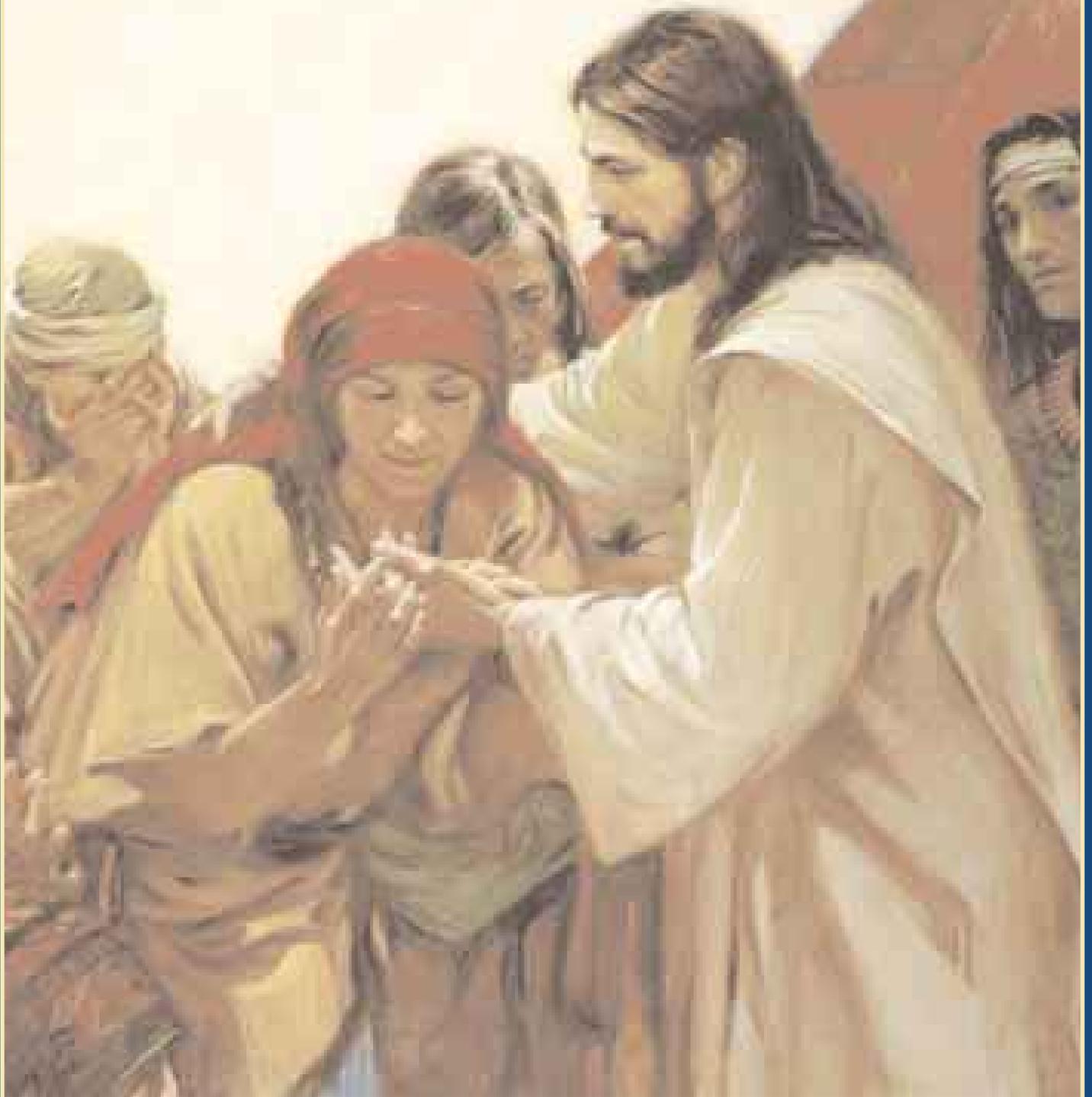
여러분이 그러한 도전 과제에 대해 넓은 시각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대응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여러분이 성공하도록 도와주실 것이기에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래된 회원이라면 ...

새로운 회원들을 향한 말씀이 담긴 잡지를 받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호는 새로운 회원들이 직면하는 도전 과제를 여러분이 더 잘 인식하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새로운 회원들의 친구이자

내게로 오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고칠 수 있게 하라
(제3니파이 9:13~14 참조)



청소년

- 20 그만한 가치가 있다
베로니카 가르시아 워커
- 22 질의응답: “제가 교회 회원이 되자, 친구들과 가족은 제 결정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 35 집 매건 워커
- 39 아이디어 목록: 후기 성도 십대가 됨
- 49 포스터: 내게로 오라

어린이: 친구들

-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후일의 선지자의 말씀
-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나는 오늘 선지자를 따르겠습니다
엘리자베스 릭스
- 친6 침례를 향한 여행
- 친8 침례 성약을 지킴 *제니퍼 로즈*
- 친10 다시 깨끗해짐 *앤 벤틀리 와둡스*
- 친13 노래: 주님께 심 분의 일을 바치고 싶어요
로니 돕슨 아담스
- 친14 친구가 친구에게: 의를 위해 섬
볼프강 에이치 폴 장로
- 친16 이제 무엇을 할까요?

친10 다시 깨끗해짐

이번 호에 숨겨진 정의반 반지를 찾으려면 연차 대회에서 하신 선지자의 말씀을 듣거나 읽기로 결심하세요.

표지

사진 촬영: 존 루크, 크리스티나 스미스, 모델이 포즈를 취함.

친구들 표지

사진 촬영: 크리스티나 스미스, 모델이 포즈를 취함.

조언자로서 여러분의 교회 경험 및 복음 지식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잡지 또는 한두 개의 기사를 나누는 것으로 누군가의 삶을 축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잡지가 더 필요하시면 여러분 지역의 배부 센터에서 구할 수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는 www.ldscatalog.com 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와드 또는 지부 지도자에게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그들은 잡지 추가분을 이미 주문했을 수도 있으며, 그 사람과 이 잡지를 나눌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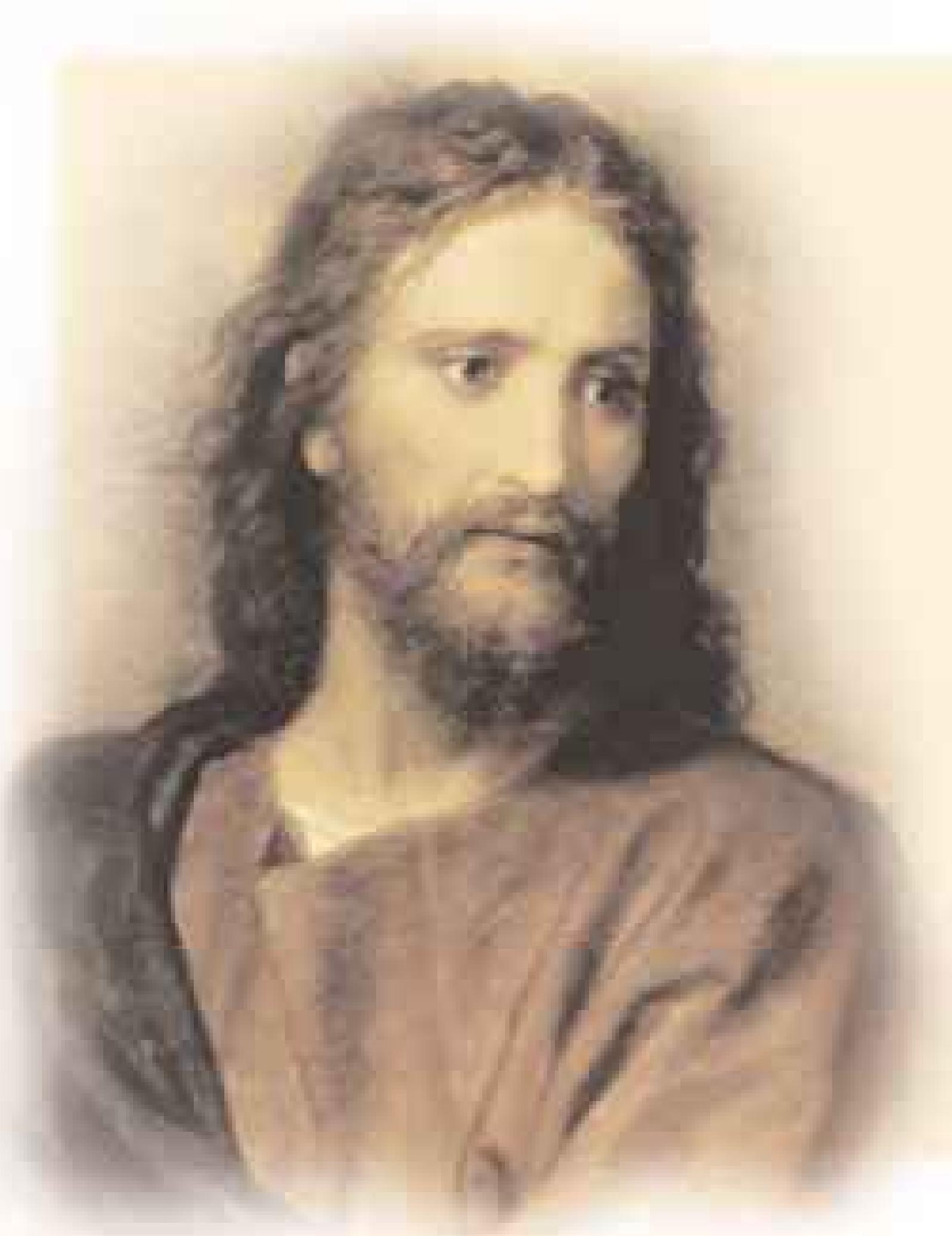
여러분이 선교사라면 ...

이 잡지의 기사들은 새로운 개종자들을 강화하고 그들이 새로운 회원으로서 무엇을 예상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새로운 회원들, 그리고 곧 침례 및 확인을 받을 사람들과 이번 호를 나누면서 와드 또는 지부의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들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선지자, 친2, 친4쪽
가정 방문 교육, 2, 44쪽	성약, 10, 친8, 친16쪽
가정 복음 교육, 2, 5, 44쪽	성전, 10, 26, 44쪽
가정의 밤, 26쪽	성찬식, 44쪽
가족 역사, 44쪽	순중, 친8쪽
가족의 단합, 17, 20, 22쪽	시련, 10, 36쪽
간증, 6, 36쪽	신권, 6, 25, 30쪽
개척자, 42쪽	신앙, 40쪽
경전 공부, 26쪽	십일조, 26, 친13쪽
금식, 26쪽	우정 증진, 2, 10, 30, 36, 42쪽
기도, 17, 26, 40, 친14, 친16쪽	의심, 36쪽
모범, 20쪽	자원, 44쪽
봉사, 10쪽	전통, 26쪽
부름, 2, 26, 30, 44쪽	존경, 17쪽
사랑, 17쪽	지혜의 말씀, 7, 26, 41쪽
상호부조회, 25쪽	축복사의 축복, 44쪽
	침례, 친6, 친8, 친10쪽
	회개, 10, 41, 친10쪽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

교회의 새로운 회원들에게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최 근 침례 받으신 여러분께 축하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신 것은 얼마나 훌륭한 첫 발을 내딛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은 다음 편지를 쓴 자매와 같은 느낌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난 1년은 제 생애에서 가장 힘든 한 해였습니다. 또 가장 보람 있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회원으로서 매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구도자인 우리가 교회 회원이 될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을 알고 놀라게 됩니다. 그 자체의 전통과 문화와 언어를 가진 세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을 인도해 줄 한 명의 특정한 사람 또는 장소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¹

새로운 회원으로서 여러분이 얻고 있는 경험은 즐거운 것이어야 합니다. 구주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은 강합니다. 회복된 복음에 대해 더욱 더

배우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망은 진실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용어, 새로운 모임, 새로운 가르침,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당황하기도 쉽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조차 힘든 일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과연 참된 후기 성도로서의 표준에 맞게 생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단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길에 들어선 후

니파이가 한 다음 말을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너희는 문으로 들어온 것이라.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의 계명을 좇아 행하였고,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시는 성신을 받았으니 ...

“그리고 이제 ... 너희가 이 험악하고 좁은 길에 들어선 후에는 내가 묻고자 하노니, 만사가 다 행하여진 것이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는 너희가 구원하기에 능하신 자의 공덕에 온전히 의지하며, 그를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것임이니라.

“그러즉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교회이며 왕국입니다. 이 간증과 이 후일의 위대한 기적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일원으로 계속 생활하라는 저의 권유를 전합니다.

그리스도와 젊은 부자, 관원의 세부 묘사, 허먼리히 호프만, 헤리슨 토프너이 서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이
환영받으며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주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와서 함께 발전하고
배우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시오.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니라.”(니파이후서
31:18~20)

교회에 가입하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각
개종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무언의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모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맞아 줄 따뜻하고 강한 손길이 없다면, 또한 우리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내딛는 발걸음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아 주고 계속 이끌어 줄 친구가 없다면
여러분은 저활동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이 이 사업의 참됨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강화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교회의 정문으로 들어와 뒷문으로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모두 소중한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제가 전에 말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개종자로서
여러분 각자는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 늘 다가갈 수 있고, 곁에서 도와주고, 질문에
대답해 주고, 문제를 이해해 주는 교회 친구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훌륭한 신앙 생활의 여정을
도와줄 가정 복음 교사, 방문 교사, 그리고 다른
회원들이 있습니다.

2. 임무 지명입니다. 활동은 이 교회의 훌륭한
특성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주님에 대한 신앙과 사랑은 팔의 근육과 같습니다.
근육은 사용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더 약해집니다. 여러분 각자는 책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책임을 수행하면서 여러분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활동을 통해 오는
성장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은 여러분이
참여하는 방법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기꺼이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여시고, 여러분이 그
책임을 성취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낙담하게 될 경우, 도움을
구하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노력하면 여러분의 능력이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3.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모로나이서 6:4)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권 정원회나
상호부조회, 청녀, 청남,
주일학교, 또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
모임에 와서 성찬을 취하고
침례 때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십시오. 매일 경전을
읽으십시오. 주님과 가까이
머물 수 있도록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십시오.

다른 교회에도 훌륭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아는 바입니다. 그들에게도 선한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이전의 종교적 전통을 통해 훌륭한 가르침을 많이 받고 좋은 습관을 많이 쌓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데살로니가전서



5:21)고 말했습니다. 선한 것은 가져와서 계속 지니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 봉사할 때 사용하십시오.

함께 기뻐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 무척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에 속한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과는 훨씬 다릅니다. 하지만 복음은 조금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테에게 “우리 주를 증언함에 … 부끄러워하지 말라”(디모테후서 1:8)고 적었습니다.

새로운 회원들께 부탁하건대 우리와 계속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팔로 여러분을 감싸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이 환영받으며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주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결점과 약점을 용서하십시오. 와서 함께 발전하고 배우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교회이며 왕국입니다. 성스러운 숲에서 일어난 시현은 조셉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의 중요성에 대해 저는 마음속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경은 참됩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분의 신권은 회복되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의 사자가 전해 준 신권의 열쇠는 우리의 영생을 위해 행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고, 우리는 그 간증에 따라 생활해야 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이 간증과 저의 축복,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 대한 저의 사랑과 이 후일의 위대한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일원으로 계속 생활하시라는 저의 권유를 전해드립니다. ■

주

1. “내 양을 찾고 먹이라”,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22쪽.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 메시지를 나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이 기사에서 언급한 모든 새로운 회원들에게 필요한 것 세 가지를 상징하는 물건 세 가지를 가져간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친구에게 받은 선물, 교회 지침서, 그리고 경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 새로운 개종자를 가르친다면, 그들이 기쁘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 토론한다. 또한 그들이 새로운 회원으로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깨닫도록 돕는다.

- 오래된 회원을 가르친다면, 친구, 책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이 새로운 회원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토론한다. 그들의 와드 또는 지부의 새로운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주도록 권유한다.

2. 가족들에게 언어, 전통, 또는 문화를 모르는 낯선 나라에 방금 입국했다고 가정해 보라고 한다. 그들에게 어떤 느낌이 들지 물어본다. 그들이 제일 먼저 바라거나 그리워할 것은 무엇인가? 이 상황을 새로운 회원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과 비교해 본다. 핑클리 회장의 메시지 마지막 부분을 읽고, 이 위대한 후일의 기적의 일부가 되는 것의 축복에 대해 간증한다.



수닐 마세이 가족

태도를 바꿈

“구주를 따르는 것은 저를 행복하게 해 줍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향한 제 태도와 제 가족의 태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공손하고 정중하게 대합니다. 우리는 좀 더 사교적이고 친절해졌습니다.” — 수닐 마세이, 인도

여섯 자녀의 양육을 도움

“제 아내 사치코는 6년 전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녀가 일곱이나 되는 우리 가족이 어머니 없이는 흩어져 버릴지 모른다고 걱정했지만, 그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계속해서 가정의 밤과 가족 기도와 경전 공부를 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복음은 아이들의 생활을 축복했으며, 아이들은 그런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차례로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 마사히로 요나미네, 일본

직업을 잃을 각오

“국제적인 대기업의 선임 부사장이라는 현 직책을 위해 면접을 보는 도중, 저는 직속 상사에게 술에 관한 저의 종교적 믿음에 대해 말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점이 책임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된다면 그 직책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사교를 위한 음주는 기업 문화에서 매우 중요했으며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는 성공적인 경력 관리의 일부라 여겨졌습니다. 상사는 경영자들이 모이는 여러 사교 모임에 제가 그와 함께 참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실망을 하기는 했지만, 제 믿음에 대해 존중을 표하면서 제게 그 직책을 제의했습니다.



마사히로 요나미네 가족



달라 로어

그리스도에게 나아옴

“교회에 들어온 이래로 제 생활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을 향한 제 태도입니다. 저는 더 이상 냉소적이지 않습니다. 좀 더 친절하고 사랑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나쁜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삶에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인생을 살고 즐기십시오.

“복음이 제 영혼을 치유하기 때문에 저는 복음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살아 계심을 압니다.” — 달라 로어, 미국 유타 주

“제가 회사에 들어간 이래로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더 이상 문제시되지 않을 정도로 기업 문화가 변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를

때 직업을 포함하여 인생에서 더 앞서 가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간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 신용인, 한국



제프리와 아나릴리 베로우스 가족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음

“복음이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두 번에 걸친 유산의 아픔을 겪은 뒤에 귀여운 딸아이를 안았을 때 정말 헤아릴 수 없이 가슴이 벅찼습니다. 신권은 우리가 신앙의 시련을 겪은 뒤에 그 열매를 보리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교회는 우리처럼 젊은 가족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의로운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열쇠를 제시해 줍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 그러한 형태의 인도를 찾을 수 있을까요? 복음은 우리에게 삶과 죽음에 관해, 질병과 건강에 관해, 그리고 영속적인 사랑에 관해 영원한 관점을 전해 주었습니다.” — 제프리와 아나릴리 베로우스, 과테말라



가리와 마리아 구아닐로 가족

영원히 함께함

“어느 날 두 선교사가 제 택시에 탔습니다.”라는 말로 페루의 가리 구아닐로 형제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들은 가족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나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제게 정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서 아내인 마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첫 번째 토론 동안 그들은 ‘가족은 영원해 (찬송가, 189장)를 불렀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덧붙였다. “침례를 받은 이후로 저희는 여러 면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계단과 같아서 저희 가족은 계속해서 더 높이 오르고 있으며, 덜 중요한 것들은 저희 생활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가리는 계속해서 말한다. “저는 성전에서 아내와 영원한 결혼을 하고 또 딸들이 저희에게 인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 가리와 마리아 구아닐로, 페루

찬송을 통해 용기를 얻음

“제가 열세 살이었던 1945년 2월에 저는 결정적인 간증을 얻었습니다. 저희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전투 지역 사이에 놓여 다른 네 가족과 함께 생명을 위협받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약 15명의 병사들이 우리에게 총구를 들이댔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어머니는 무기와 우리 다섯 명의 자녀들 사이에 서셨습니다. 어머니는 ‘얘들아, 서로 손을 잡으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어머니는 찬송가 ‘저녁 다투와 (찬송가, 102장)를 부르셨습니다!

“60년이 흐른 오늘도 제 마음 속에는 이 찬송가가 여전히 들립니다. 그 순간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고, 목숨을 보존해 주신다면 그분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겠노라고 그분과 성약을 맺었습니다. 이 약속은 제 삶을 세상적인 것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맞출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 에리히 스타크, 독일



에리히 스타크



프랭클린 엠 콘두아

저는 가정 복음 교사이입니다

“저는 복음 교리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찬송가가 교리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찬송가 부르기를 즐깁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하고 싶고, 지금은 가정 복음 교사이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다니며, 저희는 주님의 도움으로 두 가족이 활동화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 프랭클린 엠 콘두아, 가나

모든 새로운 모든 오래된 회원들이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단순히 여행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공, 즉 “[우리가]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매[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이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들어올 때 그들은 비유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시선이 닿는 모든 장엄한 산맥, 무성한 계곡,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경이로운 여행을 시작합니다. 때로 이 여행은 힘들지만, 이는 꼭 떠나야만 하는 여행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위한 여행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가는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어린아이들이라.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가지고 계시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아직은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고,

“... 담대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음이라. 왕국은 너희의 것이요, 왕국의 축복도 너희 것이요, 영원한

부도 너희 것이니라.”¹

교회 회원인 우리 모두는 이 여로에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문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다르듯이 우리의 나이와 경험 또한 항상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이제부터 [여러분은] ...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²이며 그것은 우리가 하나이며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모든 회원이 알았으면 하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는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을 가는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여행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³ “[우리가]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매[질]”⁴ 필요, 즉 성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의 영광의 보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끝까지**

회원들이 알고,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들

충실하게 남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에는 별의 왕국이나 달의 왕국을 향해 이끄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해의 왕국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도중에 약해지거나 실패하거나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렇게 공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 만일 그가 끝까지 견디면, 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설 그 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죄 없다 할 것이라.

“...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함과 끝까지 충실함으로 인하여 나의 피로 그 옷을 빨 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⁵

성약의 길

우리 각자가 선택한 이 길, 가는 도중 구주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는 이 길은 성약의 길입니다. 우리의 침례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영생으로 가는 이 길을 따르면서 성약을 맺고, 또 그 성약을 지킴으로써 이 길에 머물렀습니다. 주님의 빛은 성약을 지킬 때 오는 보상 중 하나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⁶ 예수께서는 이렇게 확언하셨습니다.

주님의 빛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생활하며 날마다 그 빛을 좀 더 잘 분별하고 더 많은 빛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는 확인을 받을 때 성신의 은사를 받는데, 이것은 참된 교회의



주 님 생애의
특성은 사랑이
담긴 봉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헌신이었으며, 그분 제자들의
생애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회원들을 위해 예비된 많은 은사들 가운데 첫 번째 은사입니다. 우리가 성약의 길을 계속해서 걷는다면 성신의 속삭임은 우리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의 여행길은 대부분 오르막길이지만, 오르는 동안 우리가 받는 도움은 참으로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맺은 성약 때문에 우리를 도와 주시는 신회의 세 구성원이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약들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매주 성찬을 취합니다. 떡을 축복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우리가] 기꺼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그의 영광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⁷라고 간구합니다.

봉사의 고결함

침례 시 우리가 맺은 성약 중 하나는 봉사하겠다는 성약입니다. 사랑이 담긴 봉사와 다른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대한 헌신은 구주의 필멸의 생애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까지나 주님의 제자들의 특성일 것입니다. 몰몬의 물가에서,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작은 무리는 서로의 짐을 지고 또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겠다는 것을 침례를 통해 성약하라는 권고를 받았을 때 기쁨으로 손뼉을 쳤습니다.⁸

우리 시대에 구주께서는 친히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침례 받기를 원하며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와서,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고자 하며 끝까지 그를 섬기려는 결심을 개지고 ... 그들의 죄 사함을 얻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였음을 진실로 그들의 행위로서 나타내는 모든 사람은 침례로써 그의 교회에 받아들여져야 하느니라.”⁹

봉사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무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짊어지셨으며, 서로의 짐을 짊어질 때 우리는 참으로 더욱 더 그분과 같이 됩니다. 교회 봉사는 어떤 면에서 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가벼운”¹⁰ 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봉사를 통해 구주와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전

우리의 성약의 길에 영원한 목적지에 대한 지상의 상징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집, 즉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묶어 줄 수 있는 성약을 맺습니다. 성전 밖에서 우리는 그러한 성약에 대해 말을 아끼지만, 성전 안에서는 성신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성약에 대해 거리낌없이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집에 거듭해서 가면서 감미롭고 확인해 주는 그러한 영의 인도를 받는 축복을 모든 성인 회원들이 받기를 갈망합니다.

새로운 회원인 여러분이 현재 서 있는 지점에서 볼 때 성전에 가는 것은 어쩌면 이르기 힘든, 머나먼 목표인 듯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까지의 거리를 한꺼번에 좁힐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에 찬 모든 행동, 회개를 향한 모든 발걸음, 계명을 지키는 일에서의 모든 조용한 승리가 매달, 매주, 매일, 매시간마다 우리를 성전으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해 줍니다.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¹¹

실제로 성전에 이르는 길은 처음에 느끼는 것보다 더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길을 따르면서 행복을 찾을 것이며, 여행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성전에서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얻고자 준비할 때 들뜬 마음으로 기꺼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와드나 지부 회원들은 누군가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돕기 위해 먼저 손을 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행하는 사람이 그들만이 되도록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손을 뻗어 다른 회원들 중에서 친구를 만드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또한 봉사하겠다고 성약했으며, 여러분이 교회 회원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축복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도움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하늘이 주는 후한 도움을 여러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그분의 천사들은 우리가 신성한 성약을 맺고 지키도록 우리를 돕는 것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분명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교리와 성약 76편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주는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이에 그들의 지혜는 커질 것이요, 그들의 이해력은 하늘에 닿으리니, 그들 앞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소멸할 것이요, 명철자의 총명이 없어지리라.

“이는 나의 영으로써 내가 그들을 깨닫게 할 것이요, 나의 권능으로써 나의 뜻의 비밀, 참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들어온 적이 없는 것까지도 그들에게 알게 할 것임이니라.”¹²

이 약속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광대한 개척자 유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있든, 또는 여러분이 교회에서 얼마나 낮은 느낌을 느끼든 상관없이 충실하고 순종적인 모든 회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과거를 뒤로 함

이제 여러분은 구속주께서 밝혀 주시는 이 길에 들어서서 천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으므로 과거의 어둠과 후회를 돌이켜 보는 일은 피하십시오.¹³ 참된 회개는 여러분이 그 어둠에서 멀리 떨어져 걸을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장 고무적인 성구 중의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 ... 을 가지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¹⁴ 따라서 힘써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과거의 것은 과거의 것으로 두십시오. 교회의 제12대 회장인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님 (1895~1985년)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우리는 겸손, 그리고 주님에 대한 깊고도 변함없는

신앙을 지니고, 또 그분을 믿으며 세상의 방법에 의해서든 세상의 칭찬에 의해서든 우리의 진로에서 멀어지는 것을 거부하면서 앞으로 움직이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¹⁵ 또는 이 세상에서 겪었던 과거의 경험을 그에 추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의 유혹이 크다고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한 유혹에는 옛 친구와 오래된 습관, 즉 담배, 술, 마약, 외설물, 도박, 성적인 범법, 또는 부정직과 같이 여러분의 행동에 깊이 박혀 있을 수도 있는 강한 습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 몇 가지 예만 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과거에 성신의 영향에서 여러분을 떼어 놓았으며, 만일 여러분이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더욱더 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성약의 힘은 유혹의 힘보다 더 큼니다. 과거의 범법에 대한 두려움이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버리겠다는 여러분의 각오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여러분을] 구원”¹⁶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힘으로는 과거의 중독이나 문제들을 이겨 내기에 정말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들을 혼자서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새로운 힘을 찾는 과정을 돕기 위해 모든 회원에게 열쇠 또는 권세를 지니고 있는 신권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그 도움을 구하십시오. 회개와 영적인 싸움의 문제에 대해 그러한 신권 지도자들, 일반적으로 감독 또는 지부 회장을 찾아 가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치유, 즉 궁극적으로 구주에게서 오는 치유를 향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고백을 포함하지 않은 일에서는 다른 사람들, 즉 친구, 사랑하는 사람,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사, 유능한 전문가, 또는 강한 간증을 가진 회원들이 상황에 따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여행을 함께 하고 있으며,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¹⁷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분이 가진 모든 영적인 힘으로 분투할 때, 우리 구주와 신권 지도자들의 도움을 의롭게 구할 때, 성신은 여러분이 침례 받을 때 느꼈던 영적인 확신을 다시 느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선택한 진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 현세와 영원에서 바라시는 진로라는 지식으로 다시 한 번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 주실 수 있습니다.

성신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인지 의심하십니까? 그가 이미, 그것도 여러 번 그렇게 하셨다는 점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런 인도를 인식하기 위한 경험이 약간 부족할 수 있지만 교회의 모든 회원은 성신의 은사를 갖고 있으며, 또 그 은사의 결과로 많은 속삭임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의식적으로 도움을 구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부모는 (때로는 특히) 제멋대로인 아이들을 포함하여 자녀를 돕기 위해 의로움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니다. 성신을 통해 하늘에서 오는 이러한 도움은 대체로 외적이며 감각적인 경험보다는 느낌으로 더 많이 올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성신은 신체적 감각보다는

마음을 통해 영과 교통합니다. 이러한 인도는 생각으로, 느낌으로, 감명과 속삭임으로 옵니다. 영감을 묘사하는 것은 늘 쉽지는 않습니다. 경전은 우리가 영적인 교통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것을 ‘느끼고’, 또 육신의 눈보다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¹⁸



일상 생활에서의 승리

위를 향한, 때때로 위험한 이 여행에서 우리 각자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기심이라는 작은 렌즈를 통해

보면서 인생이 우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시련을 주고 있으며, 어째서인지 다른 사람들은 그만큼 힘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시험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주어지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필멸의 세상에서 자신의 경험에 가장 적합한 짐을 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셨던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러한 축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분을 중심으로 세울 때 우리는 그분의 힘에 의지하게 되며, 우리는 보상으로 다른 것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의] 평화”²¹를 얻게 됩니다.

덕성의 힘과 고결성에 대한 확신.

세상은 도덕적 행동의 표준이 무언인지 궁금해하며 이곳 저곳 떠다니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름의 부목, 또는 시대의 시시한 풍조 등을 쫓아다닐 수 있지만, 우리는 쌓아 나갈 기반이 되며 우리가 단단히 붙들고 있는 굳은 반석²², 우리의 도덕적 판단을 확실하게 해 주는 확고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취지 말고 덕으로 [우리의] 생각을 장식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신은 우리의 한결같은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의] 확신이 점점 강하여[질]”²³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교제. 교회 회원이 될 때 오는 가장 커다란 힘과 기쁨 가운데 하나는 분명 훌륭한 남녀들, 우리와 참으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새로운 친구들과의 교제입니다. 교회는 공동체, 즉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충실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의 공동체,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과 똑같은 것을 바라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여행을 위한 힘과 여행하는 동안의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한다]”²⁴고 잠언의 저자는 말하고 있으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교회 회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십시오. 우리와 함께 머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만이 가진 특별한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확고부동하며 변하지 않는 결의”를 지니고, 성약에 기반한 교제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 영원무궁토록 감사하며 흠 없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 안에서 행하고”²⁵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형제 또는 자매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교회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해의 왕국의 여정에 들어선 것을 환영합니다. 용기를 내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천국과 지상에 여러분을 위한 도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쳤던 선교사들을 포함한)

확 인을 받을 때 모든 회원에게 주어지는 성신의 은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위해 표시해 놓으신 길을 그분의 자녀들이 따라가도록 돕기 위해 주시는 많은 은사를 가운데 하나이다.

선교사들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앞서 나아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²⁶

그리고 이 여행에서 여러분의 발전을 나타내는 가장 의미있는 표시는 현재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보다는 여러분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필멸의 세상에서 여러분의 시간이 끝나갈 때 여러분은 완전을 향한 과정을 아직 끝내지 못했을 것이며,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며 끝까지 충신했다면 여러분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²⁷라는 영광스러운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먼저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의 천사 무리들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영광 속에서 여행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²⁸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 주
- 1. 교리와 성약 78:17~18.
 - 2. 에베소서 2:19.
 - 3. 디모데후서 4:7 참조.
 - 4. 사도행전 20:24.
 - 5. 제3니파이 27:16, 19.
 - 6. 요한복음 8:12.
 - 7. 교리와 성약 20:77.
 - 8. 모사이야서 18:8~11 참조.
 - 9. 교리와 성약 20:37.
 - 10. 마태복음 11:30; 또한 28~29절 참조.
 - 11. 교리와 성약 64:33.
 - 12. 교리와 성약 76:5, 9~10.
 - 13. 누가복음 9:62 참조.
 - 14. 니파이후서 31:20.
 - 15. “Let Us Not Weary in Well Doing”, *Ensign*, 1980년 5월호, 81쪽.
 - 16. 시편 106:10.
 - 17. 고린도전서 12:26.
 - 18. “Revelation in a Changing World”, *Ensign*, 1989년 11월호, 14쪽; 또한 니파이전서 17:45 참조.
 - 19. 요한복음 10:10.
 - 20. 교리와 성약 122:8.
 - 21. 교리와 성약 59:23.
 - 22. 힐라멘서 5:12; 제3니파이 11:39~40 참조.
 - 23. 교리와 성약 121:45; 또한 46절 참조.
 - 24. 잠언 17:17.
 - 25. 교리와 성약 88:133.
 - 26. 교리와 성약 84:88.
 - 27. 마태복음 25:21, 23.
 - 28. 요한복음 14:6.

사랑하는 가족, 다른 믿음

복음 원리, 특히 존경, 사랑, 기도는
일부만 회원이었던 제 가족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
철십인

많은 후기 성도들, 특히 새로운 회원들은
다른 믿음을 가진 식구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방법을 배우는 중요한
일에 직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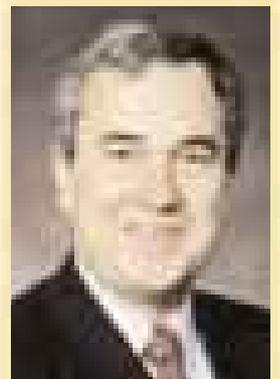
구주에게도 그분의 믿음을 나누지 않았던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요한복음 7:5)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해
오해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사랑이 담긴
분명한 대화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긴장감을 푸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저는 십대 시절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침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가톨릭
신자였던 할머니께서 새로운
믿음 때문에 제가 스스로 제
자신을 더 이상 할머니의 손자가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오해를 풀 수 있어서 얼마나
안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믿음과 상관없이 복음의
가르침이 모든 가족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마련되었다는 점을 몸소 보임으로써 서로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중 많은
것들이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나와
있으며, 이 선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¹

이러한 원리에 따라 생활하는 모든 가족은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원리,
특히 존경, 사랑, 기도가 일부만 회원이었던 제
가족을 어떻게 축복했는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족의 다른 믿음에 대해 존중을

나타낸다면 가족들도 관용과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존경

저의 개종으로 인해 초래된 초기의 긴장감과 오해가 지나간 후, 가족과 저는 서로와의 관계에 관용과 존경을 적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후기 성도가 된 후 저는 일요일에 다른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축구를 하는 대신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일요일 활동을 바꾼 이유를 가족들이 알게 되자 그들은 이해심과 존경심을 보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전통을 존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가족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니다. 상호간의 존중은 우리 가족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경은 관용과 존경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앨마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제 교회의 백성 가운데는, 교회에 속한 자로서 어떤 사람도 일어나 교회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을 핍박해서는 아니 되며, 또 그들 자신들 중에서도 핍박이 있어선 아니된다는 엄격한 법이 있었더라.”

앨마는 큰 성 제이라헤틀라에서 다음과 같은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 중에 그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그에게 핍박을 가하는 자가 있느냐?” (앨마서 5:30)

그런 다음 그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화 있나니, 이는 그가 준비되지 아니하였음이요, 또 그때가 가까웠으며 그가 회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구원받을 수 없음이라!” (앨마서 5:31)



우 리는 가족들의 삶에 있는 좋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존중함으로써 가족에게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서로 다른 종교적 믿음에 대한 존경은 필수적입니다.

사랑

사랑의 원리 또한 가족의 좋은 관계에 크게 기여합니다. 물문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시들지 아니함이라. 그런즉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랑을 붙들라.”(모로나아서 7:46)

우리는 가족들의 삶에 있는 좋은 것들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제 부모님은 교회 회원이 아니시지만 저는 부모님께 깊은 감사와 사랑을 느낍니다. 그분들이 모범과 교훈으로 제게 의로운 원리들을 가르치셨기에 저는 선교사들의 메시지가 참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은 제가 부모님을 더욱 더 깊이 사랑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이 이미 갖고 있는 좋은 것에 추가할 수 있는 원리를 그들과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눔으로써 그들의 삶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일부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믿음을 존중해야 합니다.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할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잠언 15:1)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가족들과 다투는 일을 피하도록 합시다. 분노는 우리의 관계에 오직 해를 끼치는 반면, 사랑과 친절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제3니파이 11:29 참조)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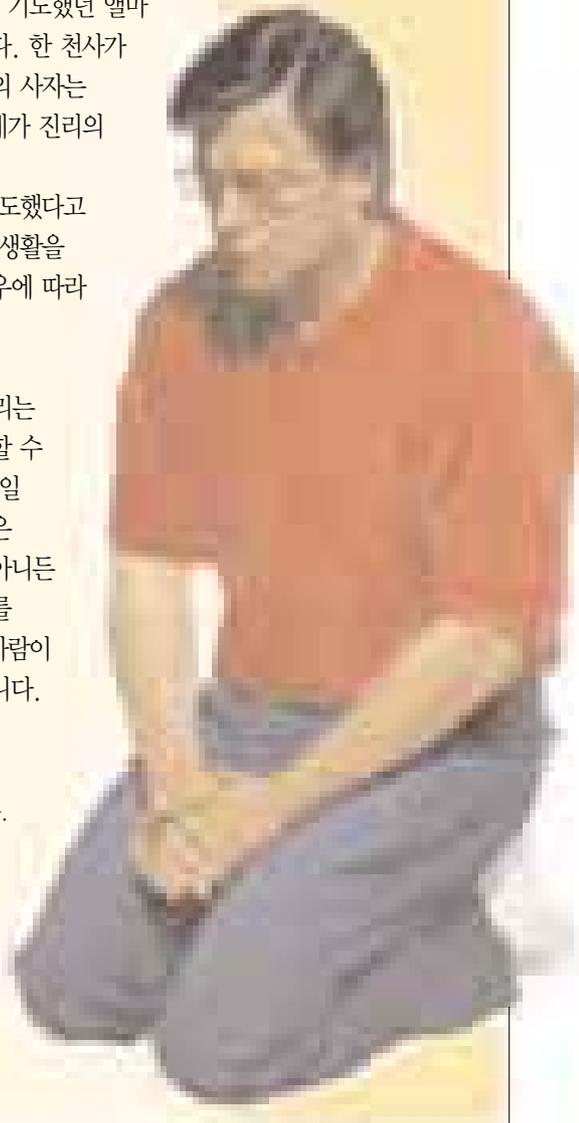
때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이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듯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회원이 되기를 늘 바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아들을 위해 기도했던 엘마 일세의 느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한 천사가 그의 아들에게 나타났을 때 하늘의 사자는 그의 아버지가 “네게 관하여 곧 네가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되기를 많은 신앙으로”(모사이아서 27:14)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가족의 생활을 축복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경우에 따라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사랑, 존경, 그리고 기도의 원리는 우리가 가족의 유익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많은 복음 원리 가운데 일부일 뿐입니다. 참으로 복음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든 아니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모두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분의 깊은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주

1.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가 기록하여 교회와 세상에 전하는 이 예언적 선언문은 가족에 관한 교리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선언문은 1995년 9월에 열린 상호부조회 총회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에 의해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낭독되었다.

기 도는 우리 가족의 삶을 축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베로니카 가르시아 워커

나는 열여섯 살 때 교회에 들어왔다. 부모님은 개종을 허락하셨지만 함께 교회에 들어오시지는 않았다. 침례식 날, 어머니는 내가 원하지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나는 빠져나오고 싶지 않았다. 나는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나는 복음이 참됨을 알고 있었다.

가족이 나와 함께 교회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일요일에 종종 외로움을 느꼈다. 그러나 워드 회원들이 나를 교회로 데려가서 같이 앉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 부름 또한 도움이 되었다. 세 살 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좀 더 와드라는 가족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나의 침례가 가족의 화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항상 내가 바라는 대로는 아니었다. 우리 가족은 일요일에 일을 많이 했고, 그들은 내가 돕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또 내가 게으르다고 말했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가족은 일요일에 외식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나는 함께 가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가족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말했지만 나는 단지 계명에 따라 생활하려 노력하고 있을 뿐이었다.

내가 계속해서 나아가게 해 준 것은 주님의 영이었다. 나는 내 생활 속에서 정말로 그 영을 느꼈다. 간증을 할 때나 경전을 읽을 때, 또한 기도를 할 때 그 영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교회에서 교사들에게 배운 것이었다. 나는 매우 열심히 들었으며 내 삶을 발전시켜 줄 것들을 배우고자 노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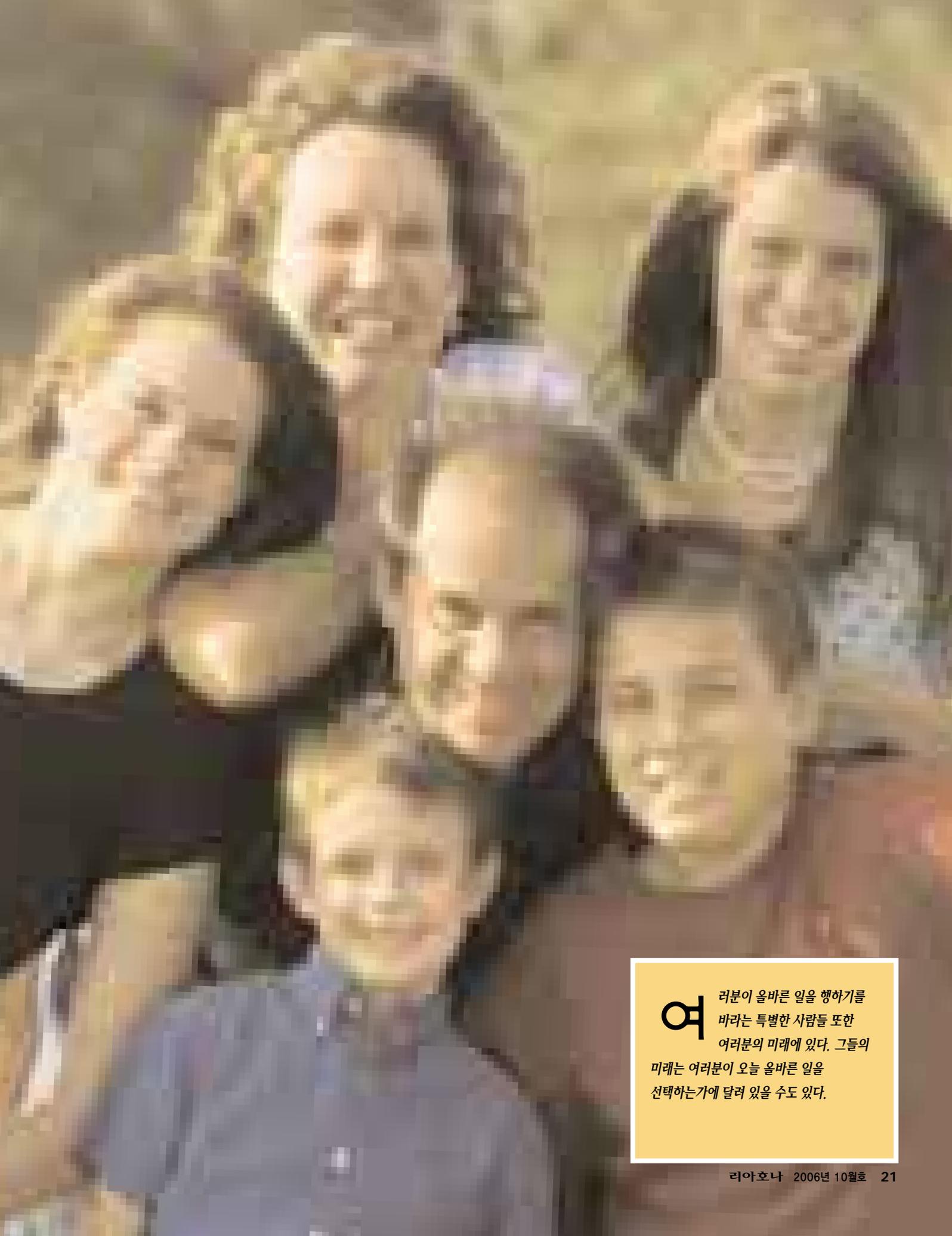
하지만 새로운 것들을 정말 많이 배우면서 종종 교회에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다. 나는 짧은 치마를 대신할 긴 치마를 몇 벌 샀다. 새 치마를 입고 교회에 갔을 때, 나는 그 또한 교회 표준에 부합하기에는 너무 짧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친구들이

교회와 관련된 약자를 사용하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여러 가지에 대해 묻기에는 너무 긴장한 상태였으며 수줍음이 많았다.

그때 도움이 된 것은 친구가 되어 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 준 십대 청소년들이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회원들을 보살피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도움이 된 또 한 가지는 내세에서의 우리 가족을 마음속으로 그려 보는 일이었다.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면서 그에 따라 생활하지 않아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싶지는 않았다. 십대에 힘든 시절을 보냈지만 나는 미래와 우리 가족에 대한 나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려 노력했다. 내가 복음에 따라 생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갖게 되겠는가?

이제 나는 나이도 더 들었고 결혼도 했으며 십대인 자녀들이 있다. 아이들은 교회에서 활동적이고, 내가 교회에 대해 경험을 통해 배워야 했던 것들을 알기 위한 어려움도 없다. 그들은 소속감을 느끼며 반 회장단에서 봉사하고 있다. 십대 시절 나는 부모님께 좋은 모범을 보이고자 노력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끝까지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이 훗날 만나게 될, 내 인생 자체보다도 더 소중하게 될 십대 청소년들, 즉 내 자녀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올바른 일을 행하기를 바라는 특별한 사람들 또한 여러분의 미래에 있다. 그들의 미래는 여러분이 오늘 올바른 일을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결국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게 될 것이다. ■



여

러분이 올바른 일을 행하기를
바라는 특별한 사람들 또한
여러분의 미래에 있다. 그들의
미래는 여러분이 오늘 올바른 일을
선택하는가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

질문의 응답

“제가 교회 회원이 되자, 친구들과 가족은 제 결정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리아호나의 대답

새로운 회원이 된다는 것은 가족이나 친구들의 비난 또는 의심이 없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침례와 확인을 받은 것은 올바른 결정이며,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은 아직 그 점을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형제님의 도움과 인내와 좋은 모범으로 그들은 이해할 수 있으며, 설사 그들이 형제님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그 결정을 존중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의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는 형제님이 왜 교회 회원이 되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형제님은 자신이 얻은 기도의 응답과 영적 경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님의 결정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 형제님의 간증과 개종 이야기를 해 줄 때 형제님과 그들 모두 영을 느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교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형제님의 결정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와서 보라”(요한복음 1:39)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을 상호 향상 모임과 가정의 밤과

교회에 들어온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친구들이 진리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지만,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과 개종 이야기를 그들과 나누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경험을 들려 주는 것은 그들에게도 좋은 일이며 그것을 회상하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그들을 교회와 교회 활동에 초대하고 다른 회원들에게 소개하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 위로와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신을 여러분의 삶에 불러오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교회 활동에 초대하십시오. 어떤 교회인지, 무엇을 하는 교회인지 와서 보도록 환영한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이러한 활동 모임을 통해 그들은 다른 회원들을 만나고 성신의 평온한 영향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형제님이 왜 교회 회원이 되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을 느끼고 의문이 풀리면 그들은 어쩌면 이후에 교회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며, 형제님의 간증과 좋은 모범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몇몇 친구들을 잃었을 지도 모르지만 형제님이 회원이 된 후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 사귀십시오. 그들은 형제님이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아마 현재 형제님이 겪고 있는 것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형제님의 결정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대한 걱정을 처리하는 문제는 형제님 혼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전임 선교사, 지지하는 친구들과 가족, 가정 복음 교사, 그리고 그 밖의 와드나 지부 회원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이번 호 17쪽에 있는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님의 기사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 몇



가장 좋은 방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는 때로는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존중하고 “서로의 견해 차이를 인정”하며 친절히 대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고 매주 교회와 상호 향상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주님께 가까이 머무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는다면 이 시련은 그리 힘들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성신이 형제님을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형제님이 이러한 시련을 겪고 있음을 알고 계시며, 형제님이 잘 해 낼 수 있으리라는 것도 아십니다. 그분은 형제님의 결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형제님이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들의 대답



저라면, 나도 처음에는 의문을 가졌지만 내가 들었던 나쁜 것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으며, 좋은 것들은 모두가 사실이었다고 그들에게 말해 줄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들과 이야기하면 할수록 이 종교가 이치에 맞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모든 의문에 답해 주었습니다. 교회 회원이 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저는 매우 만족합니다.

코디 디, 14세, 미국 텍사스 주



형제님이 침례 받았을 때, 그리고 경전을 읽고 기도할 때의 느낌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형제님의 삶이 얼마나 더 나은 방향으로 변했는지 보여 주십시오. 형제님의 영향력을 통해 어쩌면 언젠가 그들도 교회에 들어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강해하십시오.

재스민 에스, 16세,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사실 처음에는 제가 바로 그런 의문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가 선교사들과 만났을 때 저는 심대였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들을 따름이었지만 어머니와 오빠가 교회 회원이 되었을 때 그들이 배운 것이 제가 평생 배운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군대에 들어간 후, 저는 선교사들을 만나려고 노력했고 모임에 참석했으며, 공부하고 기도한 후 침례 받기 위해 집에 갔습니다. 복음은 저를 행복하게 해 주었고 영은 복음이 참됨을 말해 주었습니다.

니콜 브이, 20세, 미국 조지아 주



저는 친구들에게 교회에 갈 때 성신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이는 저를 영적으로 발전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과 일상 생활에서도 인도해 줍니다. 저는 우리

가족이 교회로 들어오도록 도와주신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 이 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팬 제이, 17세, 타이완



사람들이 우리의 결정에 대해 의문을 가지면 힘이 듭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형제님에게 의문을 품는 것과 형제님이 자신의 간증에 의문을 품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간증을 꼭 붙잡으셔서 그에 대응하십시오. 그것이 형제님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때때로 그들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리는 언제나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마이클 더블류, 17세, 미국 앨라배마 주



“새로운 회원이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때는 많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종종 그들은 친구와 가족을 떠나야 하며 교회의 표준과 부합하지 않는 생활 방식이나 사교적인 접촉도 버려야 합니다.

“교회의 새로운 회원은 침례 받은 후, 연구와 기도와 회원들의 모범과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의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시민이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너희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리아호나, 1997년 7월호, 80쪽.



저라면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를 사랑하시며 제가 그분들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침례 받았다고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저는 영생을 믿으며, 언젠가는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것임을 믿습니다. 침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가족과 다시 살기 위해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간구해서 이것이 참되다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 위안을 주며 행복하게 해 줍니다.

이그나시오 알, 17세, 칠레



과잉 반응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천천히 대화를 나누고, 언제나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형제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들은 형제님이 믿는 모든 것을 믿지는 않지만,

의견의 차이를 논쟁으로 이끌 필요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형제님의 결정이 얼마나 옳은 것인가는 형제님의 행동에 따른 것입니다. 형제님이 훌륭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그들이 볼 기회를 주십시오.

릭키 제이, 19세, 미국 아이다호 주

답변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어느 날 저는 니파이전서 7장 12절을 읽었습니다. 그 구절에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신앙을 행사하면 우리를 위해 만사를 행하실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답을 성명, 생년월일, 와드 및 스테이크(또는 지부 및 지방부), 사진(사진을 인쇄해도 좋다는 부모님의 서면 동의와 함께)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 Answers 11/06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2006년 11월 15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

신권의 축복을 받으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상호부조회에 속함으로써 오는 축복:

상호부조회는 자매들이 신권 소유자를
지지하고 도우며, 함께 조화롭게 일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도록 돕는다.
상호부조회는 또한 자매들이 복음 의식을
받고 성전의 성약을 맺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

새로운 회원 및 오래된 회원은 어떻게 신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교성 84:35~38: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주가 이르노라. 무릇
나의 종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와 왕국을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새로 침례 받은 회원으로서 일단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오면 우리는 회복된 신권을
받게 됩니다. 성인 남자들은 침례 받는
즉시 아론 신권을 받게 되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합당할 경우, 멜기세덱 신권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은 이러한
신권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신권을
존중하고 계명에 따라 충실히 생활하는
것은 개종의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자들은 상호부조회에 속하게
됩니다. …

“침례를 받고 최소한 1년간 충실히
생활하면서 주님의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돌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신성한 엔다우먼트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현세와 영원을 위한 인봉을
받습니다.”(“너희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군게 하라”, 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80쪽)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신권 형제들은 어떻게 서로 돕는가?

빌립서 1:27: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고든 비 힝클리 회장: “교회의 여성은
형제들과 힘을 합쳐 주님의 전능한 사업을
수행합니다. … 그들은 신권과 협조하는
위치에 서 있으며,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능력을 지니신 여성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책임 맡고
있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지도력과 힘과 뛰어난 결과를 보여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을 도와 드리는 훌륭한 동반자로
일하시는 것을 지지합니다.”(“만일 내가
충실하면”, 성도의 빛, 1985년 1월호,
92쪽)

캐서린 에이치 휴즈,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상호부조회는 신권의
권능과 권세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교회
조직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그리스도에게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면서, 형제와 자매는 신권회와
상호부조회에서 함께 일합니다. 자매로서
우리는 결코 교회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형제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의로운 여성으로서의 부름을
성스러운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
[상호부조회는] 신성한 부름과 봉사, 사랑,
서로를 돌보고자 하는 의무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주님의 사업에서 신권의 의식과
지시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행하는 봉사도
필요합니다.”(“그분과 맺은 성약으로”,
리아호나, 2003년, 11월호, 108쪽) ■

새로운 회원, 새로운 전통



우리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올 때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옛
전통을 뒤로하고 새로운
전통을 받아들입니다.

에프 멜빈 하몬드 장로
칠십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수용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 교회는
살아 있으며 발전하는 조직입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침례의 문을 통과해서 확인
받고 그분의 왕국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영혼을 환영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침례 받기를 원하며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와서, 자기의 모든 죄를 진실로
회개하였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꺼이
받들고자 하며 끝까지 그를 섬기려는 결심을
가졌음을 교회 앞에 증거하며, 그들의 죄사함을
언도록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였음을 진실로
그들의 행위로서 나타내는 모든 사람은 침례로써
그의 교회에 받아들여져야 하느니라.”(교성 20:37)

이러한 요건들에 부합해 침례 받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로마서 8:17)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훌륭한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로마서
8:16)십니다. 베드로는 이
가족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베드로전서 2:9)이라
일컬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학식이 많거나 없거나, 늙었거나 젊었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아무런 차별 없이 모두가
회개하고 침례 받고 확인 받아 이 특별한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초대 받습니다.

이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라디아서
3:28) 이 교회 안에는 사회적 계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교성
1:35)시기 때문입니다.

몰몬은 구주께서 미대륙을 방문하신 후에
존재했던 이같은 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다툼이 없었더라.

“그리고 시기함이나, 싸움이나, 소동이나,
음행이나, 거짓말하는 일이나, 살인이나, 여하한
종류의 음란함도 없었으니, 정녕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모든 백성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있을 수 없었더라.

“도적질이나 살인자도 없었고 레이맨인이라든가
무슨무슨인이라고 불리움도 없이, 그들은
하나로서, 그리스도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였더라.”(제4니파이 1:15~17)





우리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올 때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옛 전통을 뒤로 하고 새로운 전통과 함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선지자들에게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과 정신과 영을 오염시키는 옛 것들을 뒤로 하고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따릅니다. 다음은 새로운 회원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몇 가지 훌륭한 전통입니다.

1. 찬송가를 부른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충분히 좋지 않거나 너무 많은 노력이 든다고 생각하여 교회 찬송가 부르기를 주저합니다. “의인의 노래는 내게 기도가 되나니”(교리와 성약 25:12)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젊은이이든 노인이든 모두가 입을 열어 노래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교회 가족의 일원임을 더 잘 느끼게 해 줄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 영을 불어올 것입니다.

2. 모든 교회 모임에 참석한다. 일요일에 우리는 성찬식을 포함한 여러 모임에 참석하며, 주중에는 초대 받는 다른 모임에 참석합니다. 우리는 구주에 대해 더 잘 배우고, 성찬을 취함으로써 침례 시에 그분과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며, 복음의 중요한 진리를 배우고 토론하기 위해 모임에 참석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새로운 가족 안에서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어울리고 영원한 우정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3. 금식하고 금식 헌금을 낸다. 금식의 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베풀게 함으로써 자애,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는 모든 회원이 한 달에 한 번, 금식 주일에 두 끼니 분의 음식과 음료를 취하지 않고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궁핍한 형제자매들을 돕기 위해 교회에 헌납하도록 계획된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보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 주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4. 십일조를 낸다. 십일조는 수입의 십 분의 일을 일컫습니다. 이 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에 대한 감사의 뜻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돈은 예배당과 성전을 짓고,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사를 파견하고, 교회 자료들을 출판하고, 의미있는 다른 여러 활동을 행함으로써 주님의 사업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나이가 많은 적든 모든 회원은 십일조를 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십일조는 돈의 원리가 아니라 신앙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께 십일조를 드리지 않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5. 가족 및 개인 기도를 한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인 교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방법과 시간으로 응답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거나 예상한 응답이 아닐지라도 그것은 항상 우리를 축복해 줍니다. 우리는 식사 때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가족 및 개인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분들을 안다는 것은 곧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3 참조)

6. 월요일 저녁에 가정의 밤을 한다. 월요일 저녁은 가족이 함께하기 위해 비워 두어야 합니다. 경전을 읽고, 즐겁고 신나는 활동을 하며, 가족을 위한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가정의 밤은 영적으로 함께 발전하기 위한 훌륭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크기와 필요 사항에 따라 가정의 밤을 조정하십시오. 독신이라면 여러분의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 가정의 밤 그룹에 대해 물어보십시오. 배우자나 자녀들이 없어도 가정의 밤을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7. 교회에서 부름을 받는다. 모든 회원은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책임이나 임무 지명을 받아야 합니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이셨던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회장님(1871~1961년)은 “주님의 봉사에 있어서는 어디에서 봉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봉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¹ 우리는 부름을 열망해서도 안 되지만 자신이 어떤 직책을 맡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느낄지라도 봉사하라는 부름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형제자매들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교회 안의 모든 새로운 회원은 친구를 얻고, 책임을 가지며,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² 서로를 섬기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는 가장 위대한 전통 중 하나입니다.

8. 성전에 가기 위해 자신을 준비시킨다. 충실한 자만이 성전, 곧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의식에 참여하고 자신과 조상들을 위한 성약을 맺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또는 지부 회장과 선교부 회장)이 서명한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해의 왕국에 들어가서 가장 숭고한 모든 특권을 받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성전 성약과 의식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³

9. 매일 경전을 공부한다. 우리는 매일 경전을 공부하도록 권고 받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몰몬경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정확한 책이며, 우리 종교의 종석이고, 다른 어떤 책보다 이 책의 교훈대로 생활한다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몰몬경 소개) 우리는 분명 경전을 공부해야 하며, 특히 몰몬경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10.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분이 주시는 건강의 율법에 따름으로써 몸과 정신이 강해질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술과 담배를 삼가도록 권고 받습니다. 우리는 또한 차와 커피가 우리 몸에 해롭다고 배웁니다. 마약은 중독적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감각을 파괴하며 몸을 불구로 만듭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규칙적인 운동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며 생명을 연장시킵니다. 이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약속은 그들이 “배꼽에 건강과 그들의 뼈에 골수를 얻을 것이요,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참으로 감추인 보화도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교성 89:18~20)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인 새로운 문화에는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전통들이 있지만 위의 열 가지는 우리가 서로,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뜻에 더욱 순종할 때 이러한 전통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훌륭한 가족 안에서 그분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베드로가 이를 가장 잘 표현했습니다.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베드로전서 2:17) 이러한 특별한 전통은 우리가 속한 새로운 가족,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서로의 관계를 확립하고 강화해 줄 것입니다. ■

에프 앨빈 하몬드 장로는 1989년에서 2005년까지 칠십인으로 봉사했다.

주

1. “Not Where You Serve, but How”, *Improvement Era*, 1951년 6월호, 412쪽.
2. “양을 찾고 먹이라”,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23쪽 참조.
3. 찬송가, 189장 참조.



교

회의 조직과

프로그램은

놀라운

은사입니다. 그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돕기 위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배우고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음

젠 핀보로우
교회 잡지

로리 솔로몬이 한 후기 성도 와드에 처음으로 참석했을 때, 그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매우 호의적이고 친절했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경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임을 하는 동안 그들은 경전을 읽고, 경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를 자신의 생활에 적용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로리는 자신이 다니던 개혁파 유대교 모임에서 읽었던 토라 경전을 이해할 수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로리가 두 번째로 교회에 왔을 때는 금식 간증일이었고 모임 도중 강한 느낌이 로리를 마이크 쪽으로 나가도록

재촉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낯선 사람들 앞에서 로리는 이미 확신으로 바뀌고 있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로리는 2001년,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종자의

경험을 우리의 영의 집을 찾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에베소서 2:13,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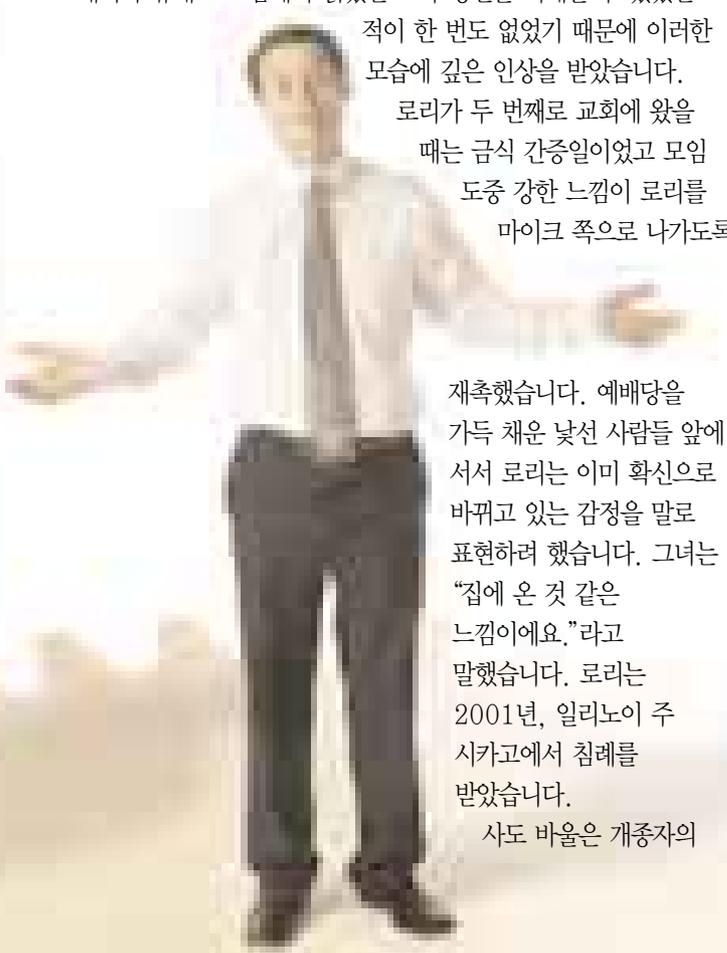
그러나 로리가 그랬듯이, 교회가 참됨을 아는 것은 교회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해한다는 것과 같은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새로운 회원과 마찬가지로 로리 또한 오래된 회원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절차와 의례와 전문적 어휘에 자신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교회 회원들이 성찬 모임 도중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고, 누군가가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에 대해 말하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그녀는 가족을 데려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것들과 그 밖의 적혀 있지 않은 “규칙”을 아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개종이란 최소한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과정을 말합니다. 그 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된 진리를 배우고 받아들여서 새로운 신앙에 의해 영적으로 변화하거나 돌이키게 되는 매우 개인적인 과정입니다. 이는 회개, 주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는 일,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포함된 평생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러한 필수적인 노력을 하는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므로 또한 두 번째 과정, 즉 후기 성도들과의 우정을 쌓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모임에 참석하며, 활동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봉사 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교회 조직의 각 부분은 우리의 영적인 돌이킴을 위해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교회에서 봉사함

매릴랜드에서 활동적인 가톨릭 교도로 자란 진 가드너 자매는

사진 촬영: 존 루크 및 크리스티나 스피스, 모델이 포즈를 취함



모든 회원을 위한 자리



교회 안에서 모든 회원은 봉사하거나 봉사를 받는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남성 -12세에서 시작하여 신권에 성임 받은 교회의 모든 남자 회원은 *아론* 또는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에* 속합니다.(교성 20편; 107편 참조)

- 아론 신권에서 집사는 감독 또는 지부 회장의 지시 아래 금식 헌금을 모으고 성찬을 전달하며, *교사*는 성찬을 준비하고 가정 복음 교사로써 회원들을 방문하며, *제사*는 성찬 기도를 하고 침례를 수행하며 다른 제사, 교사, 집사를 성임합니다. 교사는 집사 직분의 일을 지명 받을 수 있으며 제사는 집사와 교사 직분의 일을 지명 받을 수 있습니다.
- 멜기세덱 신권에서 *장로*(18세 이상)는 집사, 교사, 제사의 책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신의 은사를 부여하고 병자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는 이와 함께 감독단,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할 책임을 지닙니다.

12세와 17세 사이 연령의 젊은 남성은 또한 청년 조직에 속하며 그곳에서 복음을 배우고 건전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여성 교 회 안의 12세와 17세 사이의 모든 젊은 여성은 *청녀* 조직에 속합니다. 이 조직 안에서 청녀들은 복음 원리를 배우고, 건전한 활동에 참여하며 봉사과 지도력 기술을 연습합니다.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 여성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공평한 자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는 *상호부조회에* 속합니다.

어린이 -3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들은 *초등회* 조직에 속하여 복음 원리를 배우고 다른 어린이들과의 활동을 즐깁니다. 18개월에서 2세까지의 어린이들은 유아반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감독이란 전임
성직자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타로
이사한 후 길 건너편의 이웃이 트럭
운전사인 동시에 그 지역 후기 성도
와드의 감독임을 알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05년에 침례 받은 가드너 자매는 이제
평신도 성직자(무보수의 시간제 봉사자)가 있는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을 감사히 여깁니다.

교회 부름을 받아 봉사하는 것은 마두 메넨 형제가 교회의 조직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였습니다. 인도에서 태어나 힌두교를 배경으로 성장한 메넨 형제는 1984년에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메넨 형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름에 응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저는 교회 조직과 제가 봉사하는 직분의 책임을 이해하기 위해 지도자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로서든 복지와 관련된 임무이든, 각 부름과 봉사하는 기회를 통해 저는 교회의 조직에 대해 좀 더 배웠습니다.” 현재 그는 스테이크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그 부름을 통해 교회에 대한 그의 이해는 계속해서 깊어지며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회원들이 대중 앞에서 가르치고 말씀하고 기도하는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한때 다른 종교의 신도로서 비교적 수동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겁먹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에일린 피구에레스 자매는 본부 상호부조회 임원으로 봉사하면서 교회 전체의 상호부조회 직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스물 한 살 때 하와이에서 교회에 가입했는데, 처음으로 모임에서 기도하라는 부탁과 교사 향상반의 일환으로 공과를 가르치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녀가 성장하며 접했던 불교에서는 “성직자가 모든 일을 했고 우리는 앉아서 듣기만 했어요.”라고 그녀는 회상합니다. 비기독교 배경에서 자란 그녀는 처음에 경전을 이해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고, 친구는 함께 경전을 공부하자고 제안했으며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피구에레스 자매는 이제 새로운 회원이 교회의 다른 회원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 손을 내미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합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이 도울 수 있도록,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 충분히 용감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난 일을 돌이켜 보면서 피구에레스 자매는

또한 자신이 새로운 회원으로서 봉사할 때 “내용” 보다는 “규칙”에 대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피구에레스 자매는 새로운 회원이 새로운 도전에 부담을 느끼거나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배우는 과정에서 기쁜 마음으로 도전에 다가가도록 노력할 것을 권합니다. “영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저는 부족하다거나 두렵다는 느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종해 나가는 과정을 진척시킬 수 있었어요.”라고 그녀는 회고합니다.

“교훈에 교훈을” 더하면서 배움

모든 새로운 회원들처럼 재이너 리스 자매도 교회에 대해 배우는 것이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경험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28:10 참조) 그녀는 선교사 토론을 듣기 시작했던 1991년에 장로교 성직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감사를 표하기 위해 그녀는 자매 선교사들에게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는 밖에서 외식을 하지 않는다고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그 후로 15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많은 부름을 통해 봉사한 리스 자매는 아직도 자신의 개종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침례의 물에서 나올 때 끝나는 것이 아닌 평생의 과정입니다. 저는 아직도 ‘개종

교회 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분은 각각 구체적인 책임을 가진 신권 정원회를 통해 그의 통치 권세를 펼치십니다. 다음 직책에 있는 사람들은 멜기세덱 신권을 소지하며 총관리 역원이라 불립니다.(제3에서 제8까지의 칠십인 정원회 제외. 이들은 지역 칠십인이라 불림.)

제일회장단은 교회 회장과 그의 보좌들로 구성되는 정원회이며 교회 전체를 감리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는 선교 사업 및 교회 프로그램의 운영을 감독하며 전 세계에서 교회의 사업을 인도합니다. 사도들은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교성 107:23)입니다.

칠십인 정원회는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돕기 위해 십이사도의 지시 아래 일합니다. 교회에는 현재 8개의 칠십인 정원회가 있습니다.(민수기 11:16; 누가복음 10:1 참조)

감리 감독단은 아론 신권 회장단으로 봉사하며 건물 건축, 십일조 모금 및 복지 봉사 등과 같은 세속적인 문제들을 감독합니다.

중 이에요.”

리스 자매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신회원으로서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로 그녀의 영적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준 회원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다른 개종자들이 염려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을 위해, 또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도움이 되는 자료를 나눠 줌으로써 그들이 제자의 길을 걷도록 도울 수 있는 축복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녀는 개종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으며 큰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현재 공식적으로 초등학교 합창단 지휘자로 봉사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개종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이 교회의 가르침과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헌신적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것을 개인적인 부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개종자들이 더해 주는 많은 것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교회에 대해 배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처가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받은 모든 선함과 진리를 가지고 오십시오. 우리가 덧붙여 드리겠습니다.”¹ 회복된 복음이 새로운 개종자에게 이해를 더해 주는 반면, 새 개종자들은 회복된 교회에 힘을 더해 줍니다. 리스 자매는 말합니다. “저는 개종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경험과 배경과 재능으로 교회의 풍요함과 아름다움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깨닫도록 돕고 싶어요. 새로운 회원들은 그들의 신선하고 강한 간증을 통해 교회 전체의 영적인

그 밖에 알아야 할 중요한 용어

다음은 교회 조직과 관련된 몇몇 주요 용어들입니다. (48쪽 참조)

와드: 특정한 지역 내에 살고 있는 교회 회원들로 구성된 지역 단위 조직.

지부: 와드와 같지만 회원 수가 더 적고 프로그램 범위가 더 작은 단위 조직.

감독단 또는 지부 회장단: 감독이나 지부 회장 및 그의 두 보좌들로, 와드 또는 지부 회원들과 프로그램을 감리합니다.

스테이크: 몇 개의 와드로 구성되는 행정 단위

지방부: 몇 개의 지부로 구성되는 행정 단위

스테이크 또는 지방부 회장단: 스테이크 또는 지방부 회장과 그의 두 보좌로, 스테이크 또는 지방부 회원들과 프로그램을 감리합니다.

스테이크 센터: 스테이크 회장단 사무실과 한 개 이상의 와드를 수용하는 건물.

스테이크 고등 평의회: 스테이크에서 스테이크 회장단이 주님의 사업을 감독하는 일을 돕는 12명의 남자들로 구성된 그룹.

활력에 기여하는 데, 그 간증은 종종 큰 마음의 시련을 겪은 후에 생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개종자입니다. 온 생애 동안 복음을 배워 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자신의 개종 이후, 사도 바울은 각 교회 회원의 삶과 교회 조직을 잘 설명하는 비유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거느니라.”(에베소서 2:20~21) 교회 조직과 프로그램은 놀라운 은사입니다. 그것을 통해 새로운 회원이든 오래된 회원이든 모두 우리를 떠받쳐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세우며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같은 믿음 안에서 우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주

1. “우리 신앙의 놀라운 기초”, 리아호나, 2002년 11월호, 81쪽.



집

메건 워커

나는 내가 가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차에서 내려 우산을 펼쳤다. 내가 머물고 있는 집의 아저씨는 그저 미소를 짓고 붉은 벽돌 건물을 가리키며 “저 건물이란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감사하다고 말한 후 그의 차가 다시 도로에 들어서는 것을 바라보았다. 독일에 오기 위해 미국을 떠났을 때 나는 교회가 필요 없다고, 두 주 동안 성찬식에 참석하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난 두 주말 동안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무엇인가가 허전했고, 그래서 나는 지금 발걸음을 재촉해서 독일의 이 작은 마을에서 봉사하고 있는 두 선교사가 전날 밤에 보여

준 건물로 다가가고 있었다.

문 앞에 도착하자 한 장로가 문을 열어 주면서 안으로 들어 오라고 손짓했다. 방은 내 침실 정도의 크기였고 벽은 아무 장식 없이 흰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다. 의자 네 줄과 평범한 목재 테이블, 그리고 그 위에 놓인 빵과 물을 위한 성찬기 두 개가 이 작은 방에서 가구라고 부를 만한 전부였다. 흰 레이스가 창문을 덮었다.

방은 작고 사람들은 낯설었지만 내 머릿속에 처음 떠오른 것은 “집에 돌아왔다”는 생각이었다.

나는 자리에 앉았고 예배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독일어로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찬송가 31장)을 크게 맑게 불렀고, 내 마음은 친숙한 느낌으로 기뻐다. 이 찬송가가 그때처럼 내게 큰 감동을 주었던 적은 없었다.

나는 웃고 싶었고 춤추고 싶었으며 비 내리는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모르시겠어요? 이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모르시겠어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라고 말하고 싶었다.

성찬 기도가 시작되자,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귀에 익은 이 기도를 독일어로 들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디 한 마디에 집중해 귀를 기울였다. 집이야, 나는 집에 와 있는 거야.

플라스틱 성찬기가 내 곁을 지나갈 때 내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비록 참석 수는 적었지만 영은 강했다. 다른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마음속에서 예전에 결코 느껴 보지 못했던 두근거림과 불타는 영을 느꼈다.

나는 레이스 커튼 너머로 흐린 바깥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이 흐르는 가운데 미소를 지었다. 가족에게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지만 나는 교회에서라면 집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는 것을 알았다. ■

도전에 맞섬

래리 힐러
교회 잡지

30년 전 처음으로 주디를 만났을 때, 저는 그녀가 교회에 다닌 지 4년밖에 안 된 회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주디는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그녀가 모태 신앙이 아닐 것이라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3년 전에 로라는 스테이크 대회에서 아름다운 개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후 우리는 그녀가 불과 몇 달 전에 침례를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와, 정말 발전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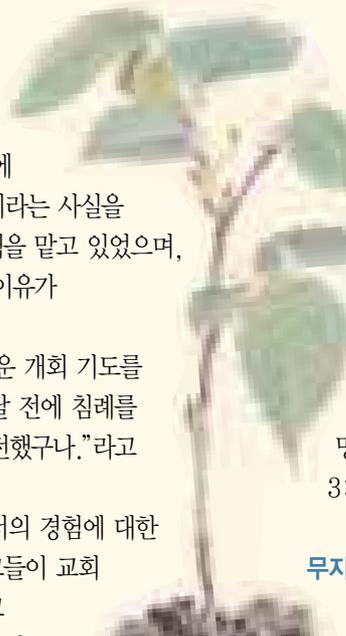
주디, 그리고 로라와 함께 새로운 개종자로서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을 때에야 나는 비로소 그들이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렵다고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아니더라도 많은 새로운 개종자가 가진 공통점입니다.

어려운 도전

주디는 말합니다. “단순히 교회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을 바꾸는 것이죠. 침례 받은 후 나는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로라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어려울 줄은 전혀 몰랐어요”

힘들다고 느끼거나 당황하는 것은 여러분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눈다면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부끄럽거나 창피하다고 느끼지



개종은 하나의 과정이며, 단순한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간증은 어린 묘목과 같아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지만 시간과 세심한 양육을 필요로 합니다.

않고 감독 또는 지부 회장, 가정 복음 교사 또는 다른 회원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의 도움으로 해낼 수 있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려고 그분의 교회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그가 명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실 것이 아니고는 아무 명령도 주지 아니하심을 내가 앎이니이다.” (니파이전서 3:7)

무지는 기쁨이 아님

무지는 기쁨이 아니라고 하지만 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익혀야 할 새로운 단어나 용어가 있기 때문에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십일조 결산이라고?) 이 교회에만 있는 독특한 조직이 있습니다. (스테이크 고등 평의회는 뭐지?) 경전을 읽거나 탐구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움나이서는 대체 어디에 있지?) 있는지도 몰랐던 교회 책임 또는 부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은 그 중 하나를 받아들이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청녀 서기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모른다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손을 내밀어 친구를 사귀기 시작할 때 조언자, 곧

생

의 폭풍우를 이겨내면 나무는 더욱 강해집니다. 성실한 양육과 인내에 대한 대가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감미로”(엘마서 32:42 참조)은 결실과 풍작입니다.

질문에 대답하고 설명할 수 있는 회원 친구를 찾으십시오. 조언자를 찾기 힘들면 감독 또는 지부 회장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부름을 받으면 해야 할 일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고, 지침서 또는 구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그런 후 주님의 조언처럼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배우며, 기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배울 기초, 즉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실망에 대처함

때때로 여러분은 자신에게 실망할 것입니다. 침례와 확인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 주지만 완전하게 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다른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잘못을 범하며, 회개하고 성찬을 취함으로써 침례 성약을 새로이 합니다. (이 성약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자 한다면 10쪽에 나와 있는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의 기사를 참조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더욱 잘 하려고 노력할 때, 성신은 우리가 더욱 정결해지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욕망을 잃기 시작합니다. (모사이야서 5:2 참조) 속죄의 권능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로라는 말합니다. “이제 회원이 되는 것이 좀 더 쉬워졌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옳은 것을 행하기 위한 더 큰 소망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더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있어요.”

다른 회원들이 완전하지 않은 면을 보이는 경우에도 로라는 그들의 불안전함으로 인해 고민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비판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요. 우리는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쉬운 멩에, 가벼운 짐

구주는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권유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멩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멩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28~30)

멍에란 짐승 한 마리가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짐을 두 마리가 공평하고 편하게 나누어 질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짐승이 밭을 갈고 마차를 끄는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14대 교회 회장인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님 (1907~1995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멍에는 힘들고 진지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돌이킨 자에게는 그 멩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울 것입니다. ...

“삶의 짐,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해도 분명 우리 모두는 그 짐을 지고 있습니다. ... 그리스도는 우리 개개인과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짐을 지고, 멩에를 메어야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는 어찌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약속은 멩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는 것입니다.”¹

개종은 하나의 과정이며, 단순한 사건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참을성이 많으시고 친절하시며 자비로우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한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들”뿐만 아니라 “또 그같이 행하기를 구하는 자” (교리와 성약 46:9)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에 따라 생활하면 더 많은 지혜와 힘이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는 결코 될 수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라.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이더서 12:27) ■

주

1. “내게로 오라”, 성도의 벗, 1991년 1월호, 20쪽.

의심에 빠질 때

의심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내부에서 생기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올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오든 상관없이 의심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검증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1. 이미 겪은 영적인 경험을 기억한다. 예를 들어 올리버 카우드리라는 물문경의 많은 부분을 번역하는 동안 조셉 스미스의 서기로 일했습니다. 그는 금판에 관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간증이 참되다는 증거를 이미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확신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님은 카우드리에게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내가 증거를 더 원하면, 이 일들의 진실에 관해 알기 위하여 네 마음속으로 내게 부르짖던 그 밤을 생각해 보라.

“내가 그 일에 대하여 네 생각에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교성 6:22~23)

주님은 우리가 영을 통해서 이미 받은 증거를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2. 인내한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과 맞닥뜨릴 때 인내하십시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굳게 붙들십시오. (즉, 기억하십시오.) 로라는 말한다. “나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일을 기억함으로써 의심이 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해요. 내가 준비되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로 간구해요.”

3. 믿음은 먹이고 의심은 굶긴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경전을 탐구하고 계명을 지킬 때 간증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엘마는 이 과정을 씨앗을 가꾸는 것, 곧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달고 귀한 열매를 맺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엘마서 32:28~43 참조) 의심을 키우는 것은 반대 결과를 낳으며, 간증은 시들게 됩니다.

2,00 m

후기 성도 십대가 됨

침례 받고 확인 받기로 한 것은 참으로 훌륭한 결정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서 여러분은 삶을 채워 줄 많은 기쁜 일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의 활동과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배우는 데 도움을 주며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 지침이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제언은 친16쪽을 참조하십시오.)

아론 신권회나 청녀회에 참석한다. 일요일마다 여러분은 와드나 지부에서 다른 십대 청소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소년들은 아론 신권회에서, 그리고 소녀들은 청녀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매주 여러분의 연령 그룹에 알맞은 공과가 주어질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가정의 밤을 한다. 후기 성도가 된다는 것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가정의 밤은 가족과 함께 복음을 공부하면서 가족에게 좀 더 친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상호 향상 모임에 참석한다. 주중에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은 함께 모여 그룹 활동이나 반 활동, 그리고 봉사 활동이나 스포츠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을 알고 친구를 사귀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미나리에 참석한다. 여러분이 14세에서 18세까지라면 세미나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재미있게 가르치는 교사와 배우러 온 반 친구들과 함께 경전을 정말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참석하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야 하지만 기대 이상의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개인 발전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청녀 또는 아론 신권 지도자가 '개인 발전'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는 소책자를 줄 것입니다. 부모와 지도자는 여러분이 목표를 선택하여 그것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갖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릴 수 있지만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며 중요한 새 기술을 익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자주 기도한다. 기도와 경전 공부를 통해 여러분은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시련 중에서도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축복에 대해 감사드리십시오.

성신의 속삭임을 듣는 것을 배운다. 성신의 은사는 확인을 받을 때 주어집니다. 성신에게서 오는 속삭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배운다면 여러분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1,80 m





육교 아래의 신앙

그레그 칼슨

나는 워싱턴 주 시애틀 근처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이 마을은 대도시와 비교적 가까운 편이기는 하지만 선교 사업 자금을 벌기에는 여의치가 않았다. 그러나 농장

경영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동생과 나는 캐스캐이드 산맥 너머 주 동쪽에 있는 큰 농장에서 우리 마을에 있는 작은 농장으로 동물 사료인 알파파 건초 운반하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파손되고 낡은 트럭을 수리하여 최대 9,000kg의 건초를 운반할 준비를 했다. 아버지가 그 작업을 우리에게 맡길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익숙해질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여러 번

그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어느 날 아침 매우 이른 시간에 동생과 나는 처음으로 우리끼리만 출발했다. 우리는 산맥을 성공적으로 넘었지만 건초를 싣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마침내 우리는 건초를 가득 싣고 산맥을 넘어 돌아오게 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비가 약간 내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전까지는 별

일이 없었다. 가랑비가 큰비로 변했을 때 우리는 즉시 고속 도로에서 육교를 발견해 그 아래에 주차를 했다.

우리는 그때까지 건초를 덮을 방수포를 사지 못했는데 건초는 비에 젖으면 금방 썩어버리고 곰팡이가 생겨서 짐승이 먹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건초가 비에 젖으면

우리 사업이 실패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꽤 오랫동안 육교 아래 앉아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결국 우리는 기도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동생이 기도했고 우리는 기다렸다. 비는 줄어들지 않았다.

우리는 어쩌면 형인 내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비가 더 심하게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영원처럼 긴 시간 동안 그곳에 앉아 있었다.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는 육교를 떠난다면 비를 피할 수 있는 다음 장소는 한 시간을 더 가야 했고, 집까지 가려면 그곳에서 또 한 시간을 더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우리 중 한 명이 신앙은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기억했고, 우리는 신앙을 행사해야 함을 깨달았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 육교 아래에서 떠났다. 나는 우리가 육교 밑을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보았던, 트럭 후드 위로 떨어졌던 빗방울 하나 하나를 모두 기억한다. 이것은 신앙의 큰 시험이었다. 그러나 트럭의 운전 칸이 육교 아래를 벗어났을 때, 비는 그쳐 있었다. 그 이후의 두 시간은 기도와 감사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

우리는 짐을 손상시키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신고 왔다. 트럭을 몰고 헛간 안으로 들어오는 도중 하늘은 멈추었던 비를 퍼부었다. 우리의 사업은 살아남았고 우리 둘은 선교 사업 기금을 성공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

내 기도가 모두 이런 식으로 응답된 것은 아니지만, 나는 빗속의 고속도로 육교 아래에서 동생과 내가 배웠던 신앙에 대한 교훈에 참으로 감사한다. ■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겠어

올레그 바라바쉬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겠어.” 이것은 내가 교회에 두 달 넘게 다녀 보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 나는 우크라이나 엘비브에서 최근에 침례 받은 개종자였고,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을 중단했다. 교회에는 친구가 없었고 갈 때마다 거의 매번 혼자 앉았다. 나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활동”이 되었다. 내 친구들은 회원이 아니었고, 나는 친구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동 생이 기도했다. 비는 그치지 않았다. 그 후 내가 기도했다. 비는 더 심하게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내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저속한 언어를 쓰며 이야기하고 있던 중, 남동생이 와서 두 명의 선교사가 나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교회에서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때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들을 보고 싶었다. 한동안 망설이다가 그들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섬웨이 장로와 흐리스토프 장로는 나를 보고 기뻐했다. 나는 술에 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선교사들이 떠난 뒤 나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느꼈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나는 선교사들이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 다시 친구들과 함께 외출했다. 상실감과 절망감에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동생이 또 내게 와서 선교사들이 나를 만나러 다시 왔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몹시 놀랐다. 이번에는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부끄러웠다. 그러나 친구들이 가 보라고 설득했다. 선교사들은 나를 보고 기뻐했다. 우리는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그들은 또 오겠다고 했다.

다음 한 주는 금방 지나갔다. 선교사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번에는 친구들과 밖에 나가지 않았다. 선교사들이 너무 기다려졌다. 그들이 왔을 때, 친구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느낄 수 없었던 무언가를 느꼈다. 떠나면서 섬웨이 장로가 “올레그 형제님, 금요일 저녁에

선교부 회장이 우리 지부에 오셔서 매우 흥미로운 말씀을 하실 겁니다. 원한다면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 보세요.”라고 했다.

“네, 갈게요.”라고 약속을 했지만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교회에 가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선교사와 한 약속을 깨뜨리고 싶지는 않았다.

교회에 도착하자 모두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들이 나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교부 회장은 우리가 의롭게 되어야 하며 모든 계명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전했다.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인가 내 영혼을 꿰뚫었고,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느꼈다. 그것은 편안하고 고요한 느낌이었다. 나는 영을 느끼고 있는 것이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나의 영혼은 회개를 갈구했다. 것처럼 오랫동안 허전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영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나가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2주 후에 지부 회장이 나를 만나자고 했고,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그는 매우 친절했고, 신권 축복을 받고 싶은지 물었다. 그 축복에는 내가 최선을 다해 계명을 지킬 때 주어질 위대한 약속들이 들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나는 청남 고문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로부터 일년 후, 영국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현재 나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공부하며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서 일하고 있다. 전에는 이러한 축복에 대해 꿈조차도 꾸지 못했다.

교회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이 기회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한다. 나의 삶을 바꾸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감사한다. ■

나를 위한 바로 그곳

프란시스코 하비에르 라라 에르난데스

나는 브리검 영의 지도 하에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한 개척자들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 나는 멕시코에 살고 있지만 내게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나는 참된 교회와 내 인생의 목적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친구인 산드로가 나를 선교사에게 소개했고 나는 곧 그들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 어느 날, 그들이 후일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복에 대해 가르치는 동안 나는 갑자기 큰 기쁨으로 가득 찼다. “이곳이 바로 그곳이다. 계속 전진하라.” 라는 영회장의 말씀대로 나도 그곳에 도착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 개척자들처럼 나도 내가 도착한 장소에 적응해야 했다. 그곳은 내게 미지의 세계였고, 멋지면서도 생소했다. 옷 입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법 모두가 내게는 새로웠다.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어휘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나보다 오래된 회원들과 이야기할 때 그들이 “강한 회원”으로 묘사하는 사람은 의롭고 남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을 말한다. 강하다는 것에 대한 나의 개념은 달랐다.

이러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식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배워야만 했다.

구도자에서 활동적인 회원으로
전환하는 이 기간은 그리 쉽지 않았다.
다행히도 개척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혼자인 적은 없었다. 산드로와 다른
이해심 많은 회원들이 비록 간단한
질문일지라도 내 질문에 답해 주기 위해,
그리고 내가 택한 이 길을 인도해 주기
위해 내 곁에 있었다. 지도자들은 내가
계속해서 합당한 생활을 하고 신권을 받게
될 때까지 관심을 기울였고, 나는 이후에
감독단 보좌로 봉사할 수 있었다.
교사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관심을
보였다. 지금 나는 이 선한 사람들을 통해

주님께서 내가 이
교회에 굳건히

남을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것을 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가족 가운데 유일한
교회 회원이 아니다. 내가 선교사로서
봉사한 2년을 포함해 교회 회원으로
보낸 몇 년은 놀라운 시간이었다.

주님과 그분의 선지자인 영
회장 덕분에 개척자들은
솔트레이크 계곡에 정착할 수
있었고 산맥에서 강한 백성이
되었다. 그들처럼 나도 교회에 강하게
남고, 발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 돌아갈 기회를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을 받았다. ■

개 척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혼자인

적은 없었다. 산드로와
다른 이해심 많은
회원들이 내 질문에 답해
주기 위해 항상 곁에
있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후기 성도가 된다는 것은 커다란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자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회원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리처드 엠 롬니와 빅터 디 케이브
교회 잡지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혼자라고 느끼는 건 저뿐인가요? 여러분은 와드나 지부에서 최근에 개종한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매년 20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와드나 지부의 회원들은 여러분의 개종을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공과나 모임에서 일부 회원이 자신의 개종에 대한 느낌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리아호나에서도 그와 같은 경험에 대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내게 기대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감당하기 힘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참여해야 할 모임이 자주 없는 종교 생활을 했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충실히 참여하시면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지 알고 놀랄 것입니다.

성전에 가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새로운 회원으로서 여러분이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성전에서

엔도우먼트를 받고 가족에게 인봉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엔도우먼트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스러운 약속을 하고 그분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인봉은 신권의 권세와 개인적인 합당성을 통해 가족이 영원을 통해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성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합당해야 하며 그곳에서 배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독이나 지부 회장은 여러분에게 성전 준비반에 참석하라고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성전에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십일조를 바치고, 교회 지도자를 지지하고, 죄나 잘못을 회개하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지체의 말씀과 순결의 법을 지키고, 간증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침례와 확인을 받은 지 얼마 안 있어 12세 이상의 교회 회원들은 감독이나 지부 회장과 접견한 다음 죽은 자를 위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성전에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인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독, 여러분의 친구

감독 또는 지부 회장과 친해지십시오. 그는 와드나 지부의 감리 신권 지도자이며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회원들과 접견하며, 여러분이 성전에 가고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돕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봉사하는 방법을 찾도록 도울 것이며, 그분 또는 다른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복음 공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차 대회

매년 4월과 10월에 교회는 연차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틀에 걸친 이 모임 동안 본부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하십니다. 대회는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고 인공 위성을 통해 전세계 지역 집회소로 방영되며, 또한 인터넷 www.lds.org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했던 모든 말씀은 *리아호나* 5월호와 11월호에 실립니다.

침례와 확인을 받기 위해 제한된 성전 추천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침례 받은 지 일 년이 지나면 성인들은 성전에 가서 더 많은 축복과 성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독 또는 지부 회장, 그리고 스테이크 회장 또는 선교부 회장과 의 접견을 약속하십시오. 여러분이 합당하게 준비되었다면 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천서에 서명을 할 것입니다.

가족 역사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조상들과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록입니다. 교회 회원이라면 누구든지 계보와 일지와 개인 역사를 포함한 가족 기록을 적고 탐구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돌아가신 분들에게 성전 축복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 역사는 또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족 관계의 영원한 본질에 대해 감사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경험을

기록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잠깐 시간을 내서 여러분의 침례와 확인에 대해 상기해 보십시오. 그런 후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사건을 기록할 때, 여러분과 자녀들은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기록을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와드나 지부의 가족 역사 전문가는 여러분을 기꺼이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교회 가족 역사 웹사이트 www.familysearch.org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어디에서 친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친구들과 둘러싸여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우정과 사랑의 커다란 원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감독 또는 지부 회장과 그의 보좌들, 그리고 다른 지도자들과 회원들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기쁨을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와드나 지부의 많은 회원들과 친해질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실 계획입니까?

전세계 교회 집회소 주소와 모임 시간을 알아 보려면 www.lds.org를 방문하여 "Other Resources" 아래에 있는 Meetinghouse Locator에서 찾아 보십시오. 감독 또는 지부 회장, 지역 사무실, 국가 웹사이트 또는 전화번호부에서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교회 회원의 특권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이 이사할 때 따라다니는 회원 기록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의 이름과 출생일자 외에도 침례 및 확인과 같이 교회 생활 중 여러분의 중요한 행사 및 날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할 경우, 새로운 주소를 와드 또는 지부 서기에게 주어서 여러분의 기록이 이사 갈 와드 또는 지부에 보내지도록 하십시오.

신권을 소유한 두 형제가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사로 봉사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매달 적어도 한 번씩 방문하여 복음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매라면 두 자매가 여러분의 방문 교사로 봉사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많은 후기 성도 친구를 갖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친구를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절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교회 회원들은 봉사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남을 축복하기 위해 그들의 시간과 재능을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경전 구절을 읽거나 합창단에 참여하거나 부름이라고 하는 특별한 임무 지명을 받아들이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배울 수 있고, 다른 회원과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다소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 사업은 그분의 사업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은 사람들의 필요 사항을 돕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봉사는 교회가 후원하는 봉사 프로젝트와 임무를 통해 주어지지만 여러분은 또한 구주의 모범을 따름으로써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병자를 방문하고 슬픔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고 여러분이 털 수 있는 짐을 털어 주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구주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그런 후 그 일을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락 시간은 있습니까? 대부분의 와드나 지부는 사교 활동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교회 회원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줍니다. 수줍음을 타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에는 일단 참석해 보십시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십시오. 의자를 정리하거나 청소를 도와도 될지 물어 보십시오. 교회에서 우리는 일할 때나 즐길 때나 모두 참여해서 자신의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계속해서 복음을 공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읽는 것입니다. 물론 경전과 후일의 선지자의 가르침에 관해 좀 더 많은 것을 배우려면 일요일 모임에 참석해야 합니다. 또한 주중에 갖는 학습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것은 십대를 위한 세미나와 청년을 위한 종교 교육원입니다. 다른 회원들에게 물어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르쳐 줄 것입니다.

축복사의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이 축복은 멜기세덱 신권의 축복사 직분에 성임된 분에 의해 성신의 영감으로 주어지며, 여러분의 생을 인도해 줄 권고와 지혜를 담은 축복입니다. 감독이나 지부 회장은 그 축복을 받기 위해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십일조 외에 어떤 헌금을 내야 하나요? 매달 한번씩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 일요일에) 회원들은

두 끼를 금식하고 그 식사에 해당되는 액수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헌금으로 바칩니다.

교회는 또한 세계적으로 다양한 인도주의적 사업, 성전 사업 및 선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능하다면 이 사업을 위해 헌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일조와 금식 헌금을 바칠 때 사용하는 봉투를 사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범이 그들에게 빛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기쁨을 나누십시오. 그들이 전임 선교사와 만나도록 하십시오. 물론경을 나누십시오. 영의 속삭임을 느낄 때 간증을 나누되, 논쟁하지 말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십시오. 회원들과 선교사들은 기꺼이 그들의 일에 여러분을 참여시키고 복음을 나누며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머물고 계속해서 성신의 영향을 느낄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매주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는 것입니다. 성찬 기도는 여러분이 침례와 확인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약속, 즉 여러분이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을 항상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분의 영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으로써 또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주 기도하고 경전을 읽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으로써 영이 함께하도록 하십시오.

그 밖에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로우시고 친절하시며 여러분이 교회 회원이 되겠다고 결정할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자료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지역에 배부 센터가 있다면 그곳을 방문하십시오. 배부 센터는 소책자, 교재, 잡지, 포스터, 비디오 및 다른 교회 자료를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www.ldscatalog.com을 통해 자료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교회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십니까?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단어 목록이 들어있는 **복음 원리** (물품번호 31110) 및 **신앙에 충실함** (물품번호 36863)과 같은 교회 자료를 읽으십시오. www.mormon.org이나 이번 호 48쪽에 있는 용어집도 참고해 보십시오.



도움이 되는 용어

이번 호 기사에는 많은 용어들이 정의되어 있다. 다음은 익숙치 않은 용어에 대해 즉시 참조할 수 있는 목록이다.

간증: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며 그분들의 가르침과 복음의 회복이 참되다고 성신에 의해 계시된 확신 또는 신앙에 의한 신념. 누군가가 간증을 할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확신을 간략하고 진심어린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교사: (1) 일반적으로 14~15세 청년이 소유한 아론 신권의 한 직분. (2) 교회의 반 또는 정원회를 가르치는 사람.

멜기세덱 신권 (또한 신권 참조): 지역 지도자의 지시 아래 합당한 성인 남자 (18세 이상)는 이 신권을 받을 수 있다. 이 신권을 가진 이들은 교회를 인도하고 유아 명명 및 축복, 성신의 부여, 기타 신권 축복 부여와 같은 의식을 집행한다. 장로, 대제사, 축복사, 칠십인, 사도는 이 신권을 가지고 있다.

부름: 교회에서 봉사하는 임무 지명 또는 직책. 각 부름에는 회원들이 그 부름에서 해임될 때까지 수행하게 되는 책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상호 향상 모임: 12세~17세 청소년을 위해 주중에 갖는 모임 또는 활동.

상호부조회: 18세 이상의 여성을 위한 교회 조직.

선교부/선교부 회장: 지리적으로 정해진 전임 선교사의 봉사 지역을 말한다. 선교부의 지도자는 선교부 회장이라 불린다.

성별: 교회 회원에게 합당하게 승인된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의 인수에 의해 교회 부름과 관련된 책임과 축복을 주는 것.

성약: 개인 또는 한 무리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맺는 성스러운 약속 또는 협약

성임: 교회의 합당한 남성 회원에게

안수로 신권 권능을 주는 것.

성전: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엔다우먼트, 가족 인봉과 같은 성스러운 의식을 행하기 위해 헌납된 교회 건물.

신권 축복: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축복을 받는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부여하는 병 고침과 위로와 권고를 위한 기도.

신권: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허락하신 권세와 권능. 12세 이상의 합당한 모든 남성 회원은 신권의 권세를 부여 받을 수 있다.

십일조: 개인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헌금하는 것.

아론 신권 (또한 신권 참조): 이 신권은 12~18세의 합당한 청년과 교회에 새로 들어온 성인 남성에게 주어진다. 아론 신권의 직분 또는 직책에는 감독, 제사, 교사 및 집사가 있다. 이 신권은 예비적 복음 곧 “회개와 침례 그리고 죄 사함” (교성 84:27)을 관리한다.

안수: 어떤 사람에게 성임 또는 축복을 주기 위해 신권 소유자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는 행위.

의식: 회원이 하나님과 성약(약속)을 맺는 침례, 성찬 및 성전 의식과 같은 성스러운 의례 또는 의식.

자매: 형제/자매 참조.

정원회: 집사, 장로, 칠십인과 같이 신권 권세의 동일한 직분을 가진 청년 또는 성인 남성 그룹.

제사: 일반적으로 교회의 16~18세 청년과 새로운 성인 회원이 지니는 아론 신권 책임의 한 직분.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성전에서는 산 자가 죽은 자를 대신해서 침례를 받는다.

이 의식은 지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침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지: 교회 부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돕거나 교회에서 취하는 조치를 승인하기 위해 회원들이 하는 것. 이것은 보통 모임에서 교회 지도자의 요청을 받을 때 오른손을 올려 표시한다.

집사: 일반적으로 12~13세 사이의 청년이 갖는 아론 신권 책임의 한 직분.

초등회: 3~11세 어린이를 위한 교회 조직

총관리 역원: 교회 전체의 일을 관리하는 멜기세덱 신권 지도자들. 여기에는 제일회장단, 십이사도 정원회, 칠십인 회장단, 칠십인 제일, 제이 정원회 및 감리 감독단이 포함된다.

해임: 직분을 가졌던 회원의 봉사에 감사하며 그들을 교회의 임무 지명이나 직책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형제/자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다. 사람들의 성 뒤에 붙이는 이 호칭은 회원들이 다른 회원을 부를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호칭이다.

후기 성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을 일컫는 약칭 또는 이름.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위의 용어 및 그 밖의 용어에 대한 추가 정보는 www.lds.org의 Gospel Library에 있는 경전 안내와 *신앙에 충실함* (물품번호 36836)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친구들



후일의 선지자의 말씀

최 초의 후기 성도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계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¹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계시를 받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분의 선지자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날 우리의 지도자이신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을 포함한 네 분의 후기 성도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어린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위대하고 훌륭한 그리고 쓸모 있으며 주님과 여러분의 부모님과 모든 훌륭한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할 것을 권고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분들을 공경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²

윌포드 우드럽 (1807~1898년), 제4대 교회 회장

“오늘, 저는 시온의 청소년들에게 경고의 음성을 높입니다. 박해의 폭풍이 여러분에게 들이닥칠 때 속지 마십시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미래에도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이 반석 위에 굳게 서도록 하십시오. ... 여러분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올바르게 생활한다면 악은 여러분을 파괴할 힘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³

조지 앨버트 스미스 (1870~1951년), 제8대 교회 회장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돕고 싶어 하시며, 여러분이 그분에게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 그분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릴 때 여러분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감사드리십시오. 우리의 만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드리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신 것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리십시오. 교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것에 감사드리십시오.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기도하면 여러분이 다시 올바른 일을 행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⁴

에즈라 테프트 벤슨 (1899~1994년), 제13대 교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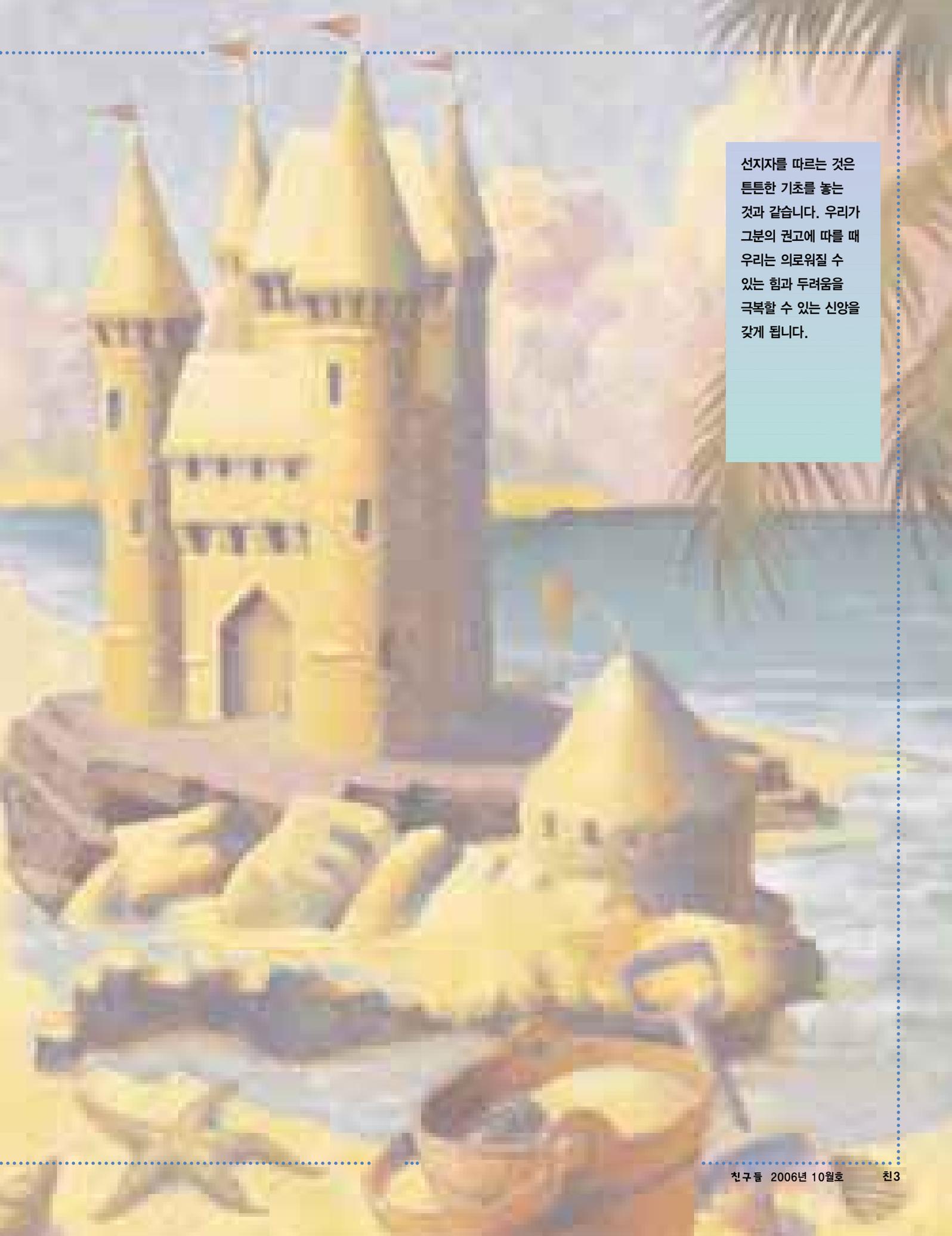
“저는 어린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세계 어디서나 매우 비슷합니다. 여러분의 피부색이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은 순결함과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에서 오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살든지 여러분은 귀중한 자녀들입니다.”⁵

“저는 이 사업이 참됨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커다란 사랑을 느낌에 감사합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며 하늘에 계신 저의 아버지임을 저는 압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극히 일부만 이해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신 이분은 저를 아시고 여러분을 아시며 어린이 여러분 각자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알고,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염려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 구속주이시고 주님이시자 구주이심을 압니다.”⁶

고든 비 힝클리 (1910년~), 제15대 교회 회장

주

1. *The Words of Joseph Smith*, 앤드류 에프 이헤트와 린든 더블류 쿡 편 (1980년), 13~14쪽.
2. *The Discourses of Wilford Woodruff*, 지 호머 더햄 (1946년), 265쪽.
3. 대회 보고, 1906년 9월, 48쪽.
4. “To the Children of the Church”, *Ensign*, 1989년 5월, 82쪽.
5. “우리는 할 일이 있어요”, *친구들*, 1997년 8월, 앞 표지 안쪽.
6. “Excerpts from Recent Addres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Ensign*, 1996년 8월, 61쪽.



선지자를 따르는 것은
튼튼한 기초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권고에 따를 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힘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나는 오늘 선지자를 따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 (교성 1: 38)

엘리자베스 리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신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경전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그분의 살아 계신 선지자를 통해서입니다. 선지자가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문경에서 노아 왕의 백성들은 매우 사악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 그분의 선지자 아빈아다이를 보내셨습니다. 노아 왕의 사악한 제사들은 화가 나서 아빈아다이를 죽이려 했지만 아빈아다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다치지 말라 ... 이는 주께서 나를 보내사 전하게 하신 전갈을 내가 아직 전하지 아니하였고” (모사이야서 13:3) 제사들 중 한 명이었던 엘마는 아빈아다이의 말을 믿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얻기 위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선지자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 내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 기도했을 당시, 지상에는 선지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회복시켰으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행하도록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연차 대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제언

1. 어린이들에게 교리와 성약 1편 38절을 읽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선지자가 최근의 연차 대회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그들의 제언들을 칠판 한가운데에 적는다. 그런 다음, 그 제언들 양쪽에 각각 현재와 미래라는 단어를 적는다. 그들에게 선지자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행하라고 권고하시는 일 중 몇 가지를 말한다. (십일조를 바치고, 정직하고, 교회에 참석하는 것)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 중에는 좀 더 커야 할 수 있는 일도 있다. (성전 결혼을 하고, 신권을 받고, 교회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목록을 읽을 때 어린이들에게 “현재” 또는 “미래”라고 지적하게 한다. 우리가 바로 지금 모든 일을 다 행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선지자를 따름으로써 여러분이 받은 축복에 대해 간증한다.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찬송가 6장)을 부른다.

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04년 10월호, 49쪽 또는 물품 번호 35602)을 보여 준다. 한 어린이에게 선언문의 다음 문장을 읽게 한다.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동정심, 일 그리고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자기 가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어린이들을 아홉 그룹의 “가족”으로 나눈다. 가족은 그 규모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기억한다. 작은 종이 조각들에 각 원리(신앙, 기도, 회개 등)를 적어 바구니 안에 넣는다. 각 가족이 한 단어를 뽑도록 한다. 그 가족이 뽑은 원리를 행동으로 표현해 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신앙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씨를 뿌리고 그것이 자라기를 기다리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 원리가 적힌 종이 조각을 칠판에 붙인다. 종이 조각 뒤쪽에 그 원리와 일치하는 노래 제목을 적는다. 각 그룹이 나머지 초등학교 어린이들 앞에서 그 원리를 행동으로 표현해 보이게 한다. 어린이들이 그 원리를 알아맞히면 칠판에서 떼어 내고 뒤쪽에 적혀 있는 노래를 부르게 한다. ●

침례를 향한 여행

사 람들이 침례와 확인을 받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여행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8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해야 하는 여행도 있는데, 이는 침례 받기 위한 준비를 하는 여행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 배웁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처럼 모범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세요.



혼자, 그리고 가족과 함께 경전을 공부하세요.



침례 받기 전날 저는 매우 들떴지만 침례탕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점점 겁이 났어요. 하지만 실제로 물 속에 들어가자 마치 하늘에서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만 같았어요. 침례 받은 후 저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성신의 은사를 받으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재클린 이, 11세, 캐나다 퀘벡



복음이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상에 오기 전에 영의 세계에서 살았으며, 우리 가족은 영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살아 계신 선지자가 있어서 정말 축복받은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분은 제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제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마이클 에프, 9세, 통가



여덟 번째 생일이 다가올 무렵, 여러분은 감독님이나 지부 회장님과 접견을 하게 됩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분은 여러분이 침례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더욱 가까워집니다. 그분께 매일 옳은 일을 선택하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세요.





여덟 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저는 여덟 번째 생일이 오기 전에 제가 침례를 받아야 할지 알기 위해 금식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어요. 침례를 받은 다음 저는 정말 좋은, 따뜻하고 행복한 느낌을 받았어요. 침례를 받은 뒤로 저는 계명을 지키고, 가족과 친구들을 친절히 대하고, 항상 좋은 모범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휘아 케이, 8세,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저는 이제 침례와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성신의 은사도 받았고, 그분은 제가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항상 저와 함께하실 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 성신은 기도의 응답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어요.

에밀리 에스, 8세, 미국 루이지애나



침례를 받은 후, 신권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교회 회원으로 확인하고 성신의 은사를 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겠다고 성약 또는 약속을 맺을 때, 그분은 여러분이 항상 성신의 인도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은 성찬을 취할 때마다 이 성약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여러분의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물 속에서 나올 때 여러분은 여러분이 입고 있는 하얀 옷처럼 깨끗하고 순결할 거예요.



침례

매일 물몬경을 읽습니다. 두 칸 앞으로 이동.

친구들과 다룬 후에 용서를 구합니다. 한 칸 앞으로 이동.

교회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는 매주 교회에 갑니다. 두 칸 앞으로 이동.

침례 성약을 지키기

제니퍼 로즈
교회 잡지

동생이 도와 달라고 합니다. 나는 싫다고 말합니다. 두 칸 뒤로 이동.

반 친구가 숙제를 빼끼게 해 달라고 합니다. 나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두 칸 앞으로 이동.

침례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고 항상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성약에서 이것들을 지킬 때 우리는 성신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위로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침례 받을 때 맺는 성약은 성전을 향한 여행길의 첫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침례 성약을 지키고 성전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돕는 길에는 그 밖의 단계들도 있습니다.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참여자 각각에게 줄 작은 색종이 조각과 주사위 한 개가 필요합니다.

준비 사항: (1) 잡지에서 이 페이지를 떼어 낸다. (2) 퍼즐 조각들을 오려 내어 두꺼운 종이에 풀로 붙여서 잘라내고 잠시 치워 둔다. 그런 다음 게임 판을 두꺼운 종이에 풀로 붙인다. (3) 참여자들을 두 팀으로 나누고 각 참여자에게 색종이를 한 장씩 주어 본인의 이름을 적게 한다. 각 팀은 서로 다른 색 색종이를 가져야 한다. (4) “침례”라고 표시된 칸에서 시작한다.

접시를 깨고 아빠에게 여동생이 접시를 깬다고 말합니다. 두 칸 뒤로 이동.

가족을 위해 친절한 일을 합니다. 한 칸 앞으로 이동.

나는 경전을 읽지 않습니다. 두 칸 뒤로 이동.

연차 대회를 들으면서 총관리 역원을 지지합니다. 두 칸 앞으로 이동.

친구가 일요일에 놀자고 합니다. 나는 그 친구를 초등학교 초대합니다. 두 칸 앞으로 이동.

가정의 밤에 참여하지
않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두 칸 뒤로
이동.

가족을 위해 친절한
일을 합니다. 한 칸
앞으로 이동.

식사 준비를 도와 달라는
요청의 말을 무시합니다.
한 칸 뒤로 이동.

돈을 조금 벌어서
십일조를 냅니다.
두 칸 앞으로 이동.

아픈 이웃에게 신문을
가져다 줍니다. 한 칸
앞으로 이동.

방에 성전 사진을
걸어 두고 그곳에
갈 목표를
세웁니다. 한 칸
앞으로 이동.

앨버타 카드스톤 성전

게임 방법: 참여자가 주사위를 굴리고 종이를 움직인다. 2 이상의 숫자가 나올 경우, 같은 팀 사람과 나누어 그 사람의 종이도 움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3을 얻으면 여러분과 같은 팀 두 명이 각각 한 칸씩 나아갈 수 있다.) 내용이 적힌 네모 칸에 도달하면 그 내용을 크게 읽고 지시를 따른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적혀 있는 경우 그 자리에 퍼즐 조각을 놓는다.

차례에 따라 다음 팀 참여자가 주사위를 굴러 움직인다.

퍼즐이 완성될 때까지 팀과 참여자들이 주사위를 굴리며 움직인다.

주: 리아호나에서 책장을 떼어내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 활동 부분을 복사하거나 베끼거나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인쇄한다. 영어판은 "Gospel Library"를 클릭한다. 기타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한다.

이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한 칸
앞으로 이동.

바쁘고 피곤하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 칸
뒤로 이동.

친구에게 나쁜
음악을 꺼 달라고
합니다. 한 칸
앞으로 이동.

가게에서 사랑 한
개를 가져오고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두
칸 뒤로 이동.

“너희의 옷이 ...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깨끗하게 되어 희게 되었노라” (엘마서 5:27)

다시 깨끗해짐

앤 벤틀리 와덤스
실화에 근거함

침례탕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 물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아빠는 싱긋 웃으면서 건너편 계단을 걸어 내려오셨다. 나는 침례탕 앞에 가득 모여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나를 사랑해서 특별히 와 준 사람들이었다. 아빠가 침례 기도를 하고 나를 물 안에 잠기게 했다. 물 밖으로 나올 때의 그 행복하고 깨끗한 느낌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침례탕 밖으로 나오자 엄마는 큰 수건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고 수건으로 나를 감싸며 따뜻하게 안아 주셨다.

물기를 닦고 이 날을 위해 특별히 고른 흰색 아일릿(역주: 자수로 된 장식용 구멍)이 달린 새 드레스를 입고 가족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빠, 친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그리고 삼촌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나를 교회 회원으로 확인하셨다.

그 후 모두 내게로 와서 나와 껴안거나 악수를 했다. 나의 가정 복음 교사는 “지금 이 순간 너 깨끗해! 아무 죄도 없는 거야!” 라고 말했다.

난 그 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바로 그 순간에는 내가 거의 완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가능한 한 오래 그 상태에 머물기로 결심했다.

모두 밖으로 나가 넘실거리는





넓은 잔디밭에 앉아 이야기하고
다과를 먹으며 포토맥 강
경치를 즐겼다.

나는 사촌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일어나
주변을 뛰어다녔다.
“조심하렴, 새 드레스를
입었다는 걸 기억하고.”라고
엄마가 주의를 주셨다.

우리는 숨바꼭질을 하며
나무 주위에서 서로를
쫓아다녔다. 나는 빙글 돌 때 드레스가
부풀어 오르는 것이 좋았다.

그 다음, 최악의 일이 벌어졌다. 나는 미끄러져
아침에 내린 비 때문에 생긴 진흙 웅덩이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다. 숨을 헐떡이며 일어서는데 아이들이 놀라는 소리가
들렸고 몇 명은 킁킁거리며 웃는 것이었다. 나의 하얀 드레스는
진흙투성이가 되어 버렸다. 그보다 더 안 좋은 것은 엄마의
주의를 무시했다는, 벌써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다. 드레스는 깨끗해져야만
했다. 그렇게 될 때까지 드레스를 비벼 빨기로 했다. 싱크대
안으로 드레스를 끌어올려 진흙 위로 물을 흘려 부었다. 흙은
없어졌지만 얼룩은 내 하얀 새 드레스 앞쪽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교회 밖으로 나가 주차장 옆 모퉁이에 앉아 열기로
가물거리는 아스팔트 위를 보고 있었다. 내 뒤로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앉으셔서 한 팔로 나를 안아
주셨다.

“진흙탕에 빠져 버렸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빨면 돼, 그러면 얼룩이 빠질 거야.”라고 엄마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화장실에서 해 봤지만 빠지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절대 안 빠질 것 같아요. 이 옷을 다시
입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하면서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새 드레스를 버린 것에 대해 엄마가 야단치실 줄
알았는데 엄마는 “이제 네겐 오늘이 더 기억에 남을 것 같구나.”

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누가 자신의 침례식을 망친 것을 잊을 수
있겠는가!

엄마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앞으로 살면서 실수도 하게
될 거야. 우린 모두 실수를 하지. 그리고 네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실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을 거야.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죠?”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싶어하셔. 우리가 회개하고
겸손히 간구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단다. 마치 네가 침례탕 밖으로 나왔을 때처럼 말이야.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야.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 위해 매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니?”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성찬을 취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맞아.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침례 받았을 때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는 거야. 표백제를 조금 넣으면 드레스는 다시 희게
될 거야. 이번 얼룩은 처음도 아니고, 분명히 마지막 얼룩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완전히 순종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침례 전과 마찬가지로
침례 후에도 죄

사람을 받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침례
성약에 의존합니다. 성령과 함께
속죄의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회개에 의존합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칠십인,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Ensign*,
2001년 7월호, 24쪽.

아닐 거야.” 엄마는 내 무릎에 손을
대고 일어났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 마지막
실수도 아니라니. 하지만 나는 침례와
확인을 받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조금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지난날 나의 모든 실수를 없애
버린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것은

항상 완전해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힘써
노력함으로써 내가 깨끗하게 머물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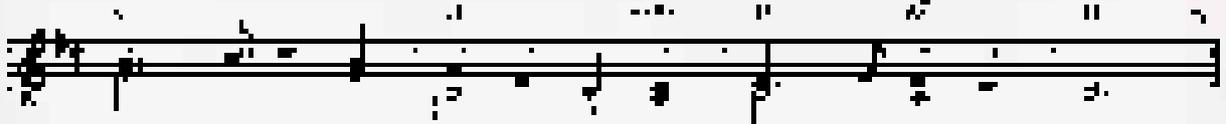


주님께 십분의 일을 바치고 싶어요

즐겁게 - = 1' + 11?



1. 나 십 일 조 를 주 님 께 드 리 고 싶 어 요 주
2. 주 님 께 내 사 랑 드 리 니 주 기 빼 하 셔 요



앞 사 에 사 랑 드 리 니 주 기 빼 하 셔 요
사 랑 축 복 감 사 로 십 일 조 드 리 요



작사 및 작곡: Lonnie Dobson Adams, 1942년생, © 1969, 1989 IRI
이 노래는 교회나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음.

말라기 3:10



의를 위해 섬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로마서 11:20)



현재 유럽 중앙 지역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칠십인 정원회의 볼프강 에이치 폴 장로와의 인터뷰에서 발췌, 김벌리 웹, 교회 잡지

제가 독일에서 성장할 때 아버지와 저는 인구 약 6만 명의 도시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교회가 몇 시간 가야 하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 모임이나 주일 학교, 초등학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허가를 받아 우리는 집에서 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모임의 사회를 보시고 성찬을 축복하셨으며, 종종 공과를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늘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때때로 반 친구들이 제 믿음에 대해 절 놀렸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친구들이 제게 축복이 되었던 복음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저는 창피하지 않았고 교회 회원이라는 것이 감사하게 여겨졌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 한 분이 교회에 대해 절 놀렸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미있지 않아요. 이건 제가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 이후로 선생님은 다시는 저를 놀리지 않았습니다. 반 친구들은 제가 저의 원리를 옹호하는

것을 보고 저를 존중해 주었고 반장으로 뽑아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믿음을 옹호한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청년이 되어 독일군에 들어갔을 때에도 저는 그 교훈을 기억했습니다. 이번에는 동료 군인이 저를



놀렸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제가 신앙에 따라 생활한다는 것을 알고, 놀리는 대신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제게 술을 권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만일 제가 한 번이라도 신앙에 거슬리는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면 제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때때로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의를 옹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을 놀리는 사람들은 어느 날 여러분의 모범을 보고 여러분에 대한 존경심을 보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표준에 충실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제 간증의 일부는 제가 기도에 대해 참으로 많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대여섯 살 무렵, 저는 귀가 너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신권 축복을 받았고, 그 고통이 사라졌을 때 놀랐습니다. 어린 시절 기도와 신권의 권능을 느낀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저를 도왔습니다. 언젠가 저는 발표를 해야 했는데 매우 중요한 파일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살펴보았지만 그 파일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다 되어 가고, 저는 초조했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몇 번이나 살펴보았던 벽장을 열었고, 폴더 두 개가 서로 붙어서 한 묶음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필요했던 것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에 무척 많이 의존합니다. 어린 친구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을 신뢰하며 의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신앙을 가진다면 문제를 해결하고 의를 옹호하도록 도와줄 개인적인 기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오른쪽: 여섯 살 때. 오른쪽 끝: 열네 살 때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 주고, 더욱 강한 간증을 얻게 해 주며,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게 해 줄, 여러분이 매일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십대를 위한 제언은 39쪽을 참조한다.)

기도하십시오. 아침저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속으로 기도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경전을 읽으십시오. 경전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고 거기서 발견하는 의로운 모범을 따르십시오.

리아호나의 친구들을 읽으십시오. 이 잡지에서 여러분은 이야기를 읽고, 활동을 하고, 숨겨진 정의반 반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사랑을 보이십시오. 매주 가정의 밤에 참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정의 밤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복음을 더 가까이 하고, 복음을 배우며, 게임을 하고, 맛있는 다과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계명을 지키십시오. 계명은 경전에도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대표해 말씀하시는 오늘날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주어집니다.

나의 복음 표준을 배우고 실천하십시오. (소책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인쇄되어 있음.* 또한 *리아호나*, 2006년 6월호, 친4쪽 참조) 복음 표준은 여러분이 옳은 일을 선택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약을 지키십시오. 성약은 침례 받을 때 맺은 약속입니다. (모사이야서 18:8~9 참조) 교회에 참석하여 여러분의 성약을 새롭게 하고, 배우고, 우정을 쌓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십시오. 구주의 모범을 따를 때 그분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느낄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는 미소 지을만한 일입니다. ●

리아호나 활용 방법

브리트니 빔, 교회 잡지

전 세계 후기 성도들에게 리아호나 잡지는 영적 인도와 복음 공부의 중요한 근원이다. 그것은 만국으로 향하는 “주의 음성” 같아서, 그분은 “이 기쁜 소식을 그의 온 백성 중에 울리게 하시나니, 곧 지면에 널리 흩어진 자들에게까지”(앨마서 13:22) 울리게 하신다.

리아호나는 무엇인가?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공식 잡지로, 현재 50개 언어로 출판되고 있다.(출판 빈도는 언어에 따라 다르다) 리아호나라는 단어는 물론경에 나오는 용어로, “나침반” 또는 “지시기”를 의미한다.(앨마서 37:38 참조) 이 잡지에는 총 관리 역원 및 교회의 다른 회원들이 기고한, 신앙을 증진시키는 메시지들이 들어 있다. 성인,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한 기사들이 담겨 있다.

리아호나는 우리 후일의 선지자들이 전해 주는 중요한 권고를 받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말했다. “교회 회원인 우리에게는 우리의 가치관을 지킨다면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자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발행하는 잡지는 이러한 자원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 잡지를 펼치면, 그곳에서 우리 자신과 가족을 이끌어 주고 영성을 고취시키는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을 정규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세계의 모든 회원들에게 교회 잡지를 구독 신청하고 읽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신권 지도자들이 모든 가정에서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합니다.”¹

개인 공부를 위해, 가족과 함께, 그리고 교회 부름에서 어떻게 리아호나를 활용할 수 있는가?

리아호나 각 호에는 특정 주제에 관한 기사를 찾도록 돕기 위해 이번 호의 주제들이라는 색인이 있다.(1쪽 참조) 이 외에도 잡지는 가정의 밤(1쪽 참조), 가정 복음 교육 및 방문 교육(2쪽 및 25쪽 참조), 초등학교 함께 나누는 시간(친4쪽 참조)을 위한 각종 제언을 제공한다. 이러한 제언들과 기타 기사



들은 교회 공과를 가르칠 때 쉽게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리아호나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료이다.

교회 본부는 주의 영이 리아호나를 통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간증하는 전세계 곳곳의 사람들에게서 많은 편지를 받고 있다. 다음 편지를 살펴보자. “리아호나는 제게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도록 도와주었어요. 또한 간증을 강화시켜 주었고 아직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우리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리아호나는 우리 가정에 기쁨과 사랑을 가져다 주었고, ... 어둠의 순간에도 저에게 빛이 됩니다.”²

우리가 리아호나를 공부하고 그것이 가르치는 원리를 적용할 때,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은 커지고 우리의 간증 및 구주와의 관계는 강화될 것이다. ■

주

1. 마빈 케이 가드너, “전세계인을 위한 잡지: 교회의 국제판 잡지에 관한 소개”, 리아호나, 1998년 10월호, 32~33쪽.
2. 칼로스 알 마틴스, “모든 가정에 리아호나를”, 리아호나, 2000년 10월호, 45쪽.

리아호나의 신규 구독 및 재구독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리아호나 구독 및 관련 내용은 워드 및 지부 서기, 잡지 대표, 그리고 교회의 지역 배부 센터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온라인 상의 ldscatalog.com을 통해, 또는 1-800-537-5971로 전화하여 주문할 수 있다. (발행 빈도는 언어에 따라 다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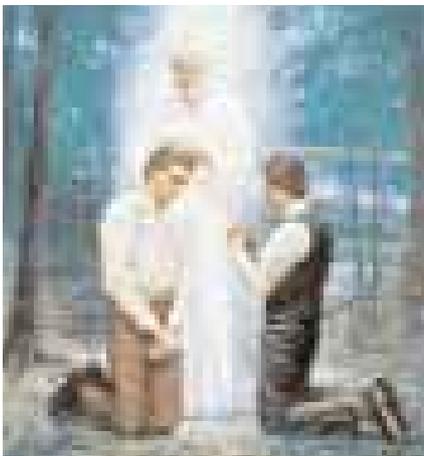
교회 역사 연표



1820년 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한 숲에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의 회복을 시작하다.

1823년 9월 21~22일: 천사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 인근의 언덕에 묻혀 있는 금판에 새겨진 고대 기록에 관해 알려 주다.

1829년 5월 15일: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침례 요한에게서 아론 신권을 받다.



1829년 5~6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신권을 회복하다.

1830년 3월: 몰몬경 초판이 뉴욕 주 팔마이라에서 영어로 출판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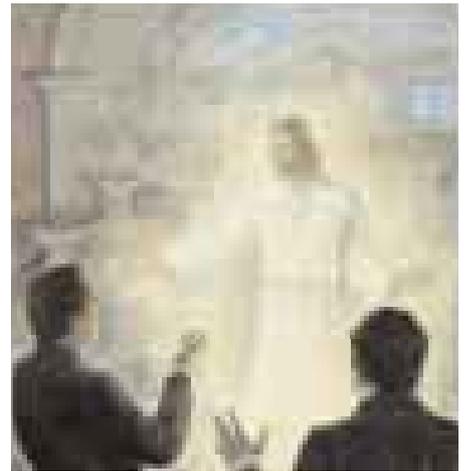
1830년 4월 6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뉴욕 주 페이엣에서 정식으로 조직되다.



1835년 2월: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고 칠십인 정원회가 조직되다.



1836년 4월 3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커틀랜드 성전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셔서 성전을 받아들이시다. 그런 다음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아가 나타나 신권 열쇠를 회복하다.



1842년 3월 17일: 조셉 스미스가 나무에서 상호부조회를 조직하다.

1844년 6월 27일: 조셉 스미스와 하이럼 스미스가 일리노이 주 카테지에서 폭도에 의해 순교당하다.

1846년 5월 1일: 나부 성전이 완공되어 헌납되다.

1847년 7월 21~24일: 최초의 후기 성도들이
솔트레이크 계곡에 도착하다.



1878년 8월 25일: 최초의 초등회 모임이 열린다.

1915년 4월 27일: 제일회장단이 훗날 가정의
밤이라 불리게 된 가족의 밤을 갖도록 권고하다.

1936년: 교회 복지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다.

1947년: 교회 회원 수가 백만 명에 이른다.

1950~1960년대: 선교 사업이 전세계로
확장되다.

1995년 9월 23일: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발표하다.

1997년: 교회 회원 수가 1,000 만 명을
넘어서고, 미국 내보다 미국 외 지역에 사는 회원
수가 더 많아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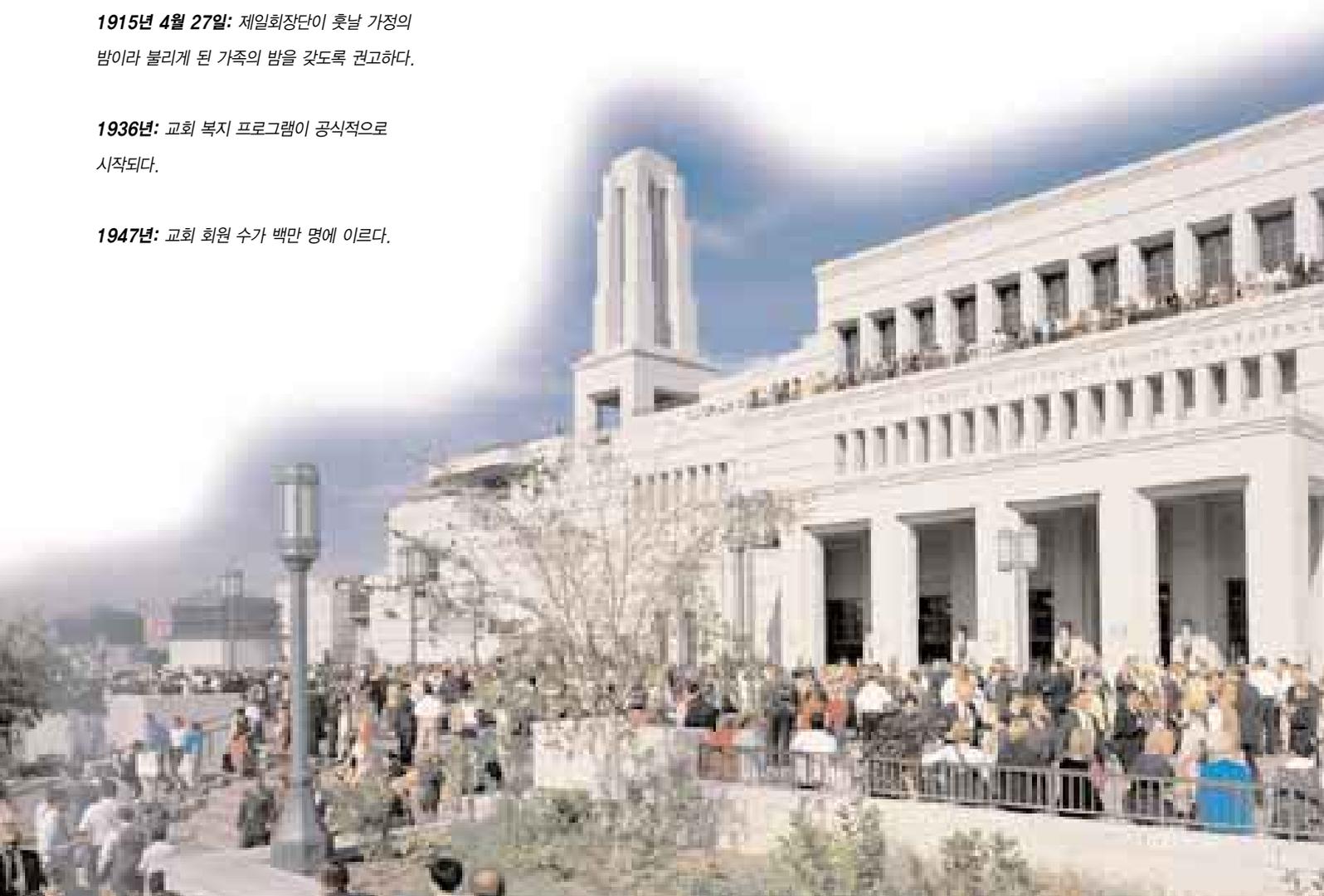
1998년: 최초의 소규모 성전들이 헌납되다.

2000년 10월 8일: 고든 비 항클리 회장이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컨퍼런스 센터를 헌납하다.



2001년 3월 31일: 항클리 회장이
영구 교육 기금을 발표하다.

2004년 4월: 교회 회원 수가 1,200만 명을
넘어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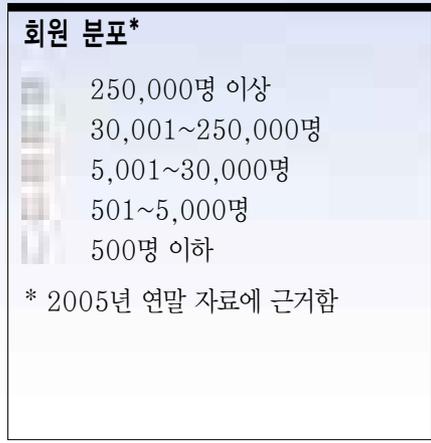


교회, 이어지는 급속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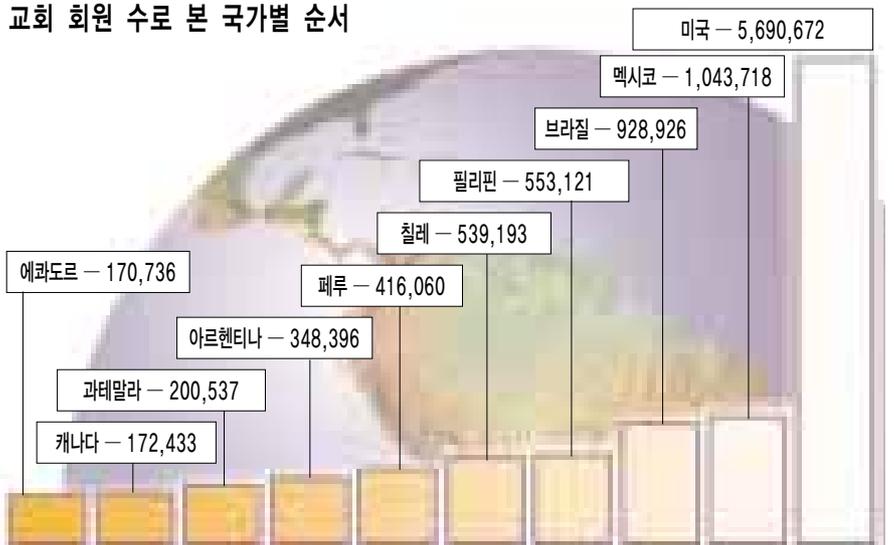
전 세계 교회 회원 수가 성장을 계속하여 2005년에는 12,560,869명에 이르렀다. 2005년 교회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에는 현재 2,071개의 스테이크, 52,060명의 선교사, 그리고 122개의 운용 중인 성전이 있다. 2005년에는 240,000명 이상의 개종자가 교회에 들어왔다. 현재 341개의 선교부가 전세계에 세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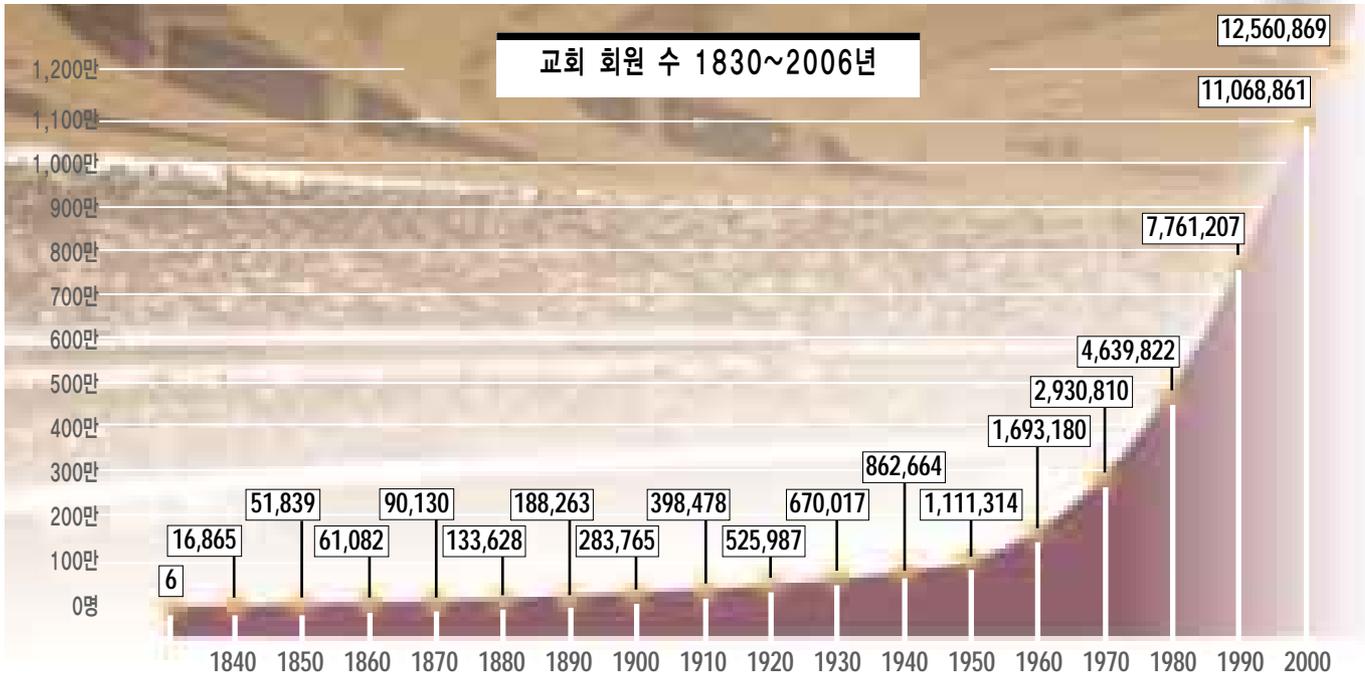
2006년판 미국 및 캐나다 교회 연감에 따르면, 교회가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미국에 550만 명의 회원들이 살고 있지만, 교회 회원 중 절반 이상(660만 명)이 세계 곳곳의 160개국 이상에 살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미국 및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의 교회 회원 수 성장률(17.2퍼센트)은 미국 및 캐나다 지역의 성장률(9.2퍼센트)의 거의 두 배에 이르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비율이 아니다. “숫자는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말해 주지 못합니다.”라고 교회 공보부의 실무 책임자인 브루스 올슨 형제는 2005년 4월의 뉴스 발표를 통해 말했다. “후기 성도를 평가하는 진정한 기준은 그들이 지닌 신앙의 깊이,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의 생활이 좀 더 발전하고 있다. ■



교회 회원 수로 본 국가별 순서





교회,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위해 노력함

후기 성도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수백 가지에 이르기 때문에 교회는 전세계적으로 160개국에 넘는 나라에 살고 있는 회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면서 다양한 배경을 지닌 회원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교회 번역과는 승인된 경전, 말씀, 그리고 기타 교회 자료를 번역하는 책임이 있다. 번역과는 105개 언어로 활발히 일하고 있다. 번역과의 목적은 교회 교리 및 정책의 의미가 번역을 통해 정확하게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다.

2006년 4월 연차 대회는 교회의 언어 능력에서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웠는데, 최소한 한 차례 이상의 모임이 85 개의 언어로 통역되었다. 다른 지역에서 통역

이 이루어진 언어는 23 개에 달한다.

교회에는 현재 77개 언어로 완역된 물본경이 있다. 그 외 28개의 언어로는 물본경이 부분적으로 출판되어 있다. 새로운 경전 번역은 지역 회장단이 요청하고 제일회장단이 승인한다. 가장 최근의 물본경 완역은 트위어(가나)로 2005년에 출판되었다.

번역 자료의 일부는 교회 웹사이트인 LDS.org에서 43개 언어로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작업을 통해 올해 교회는 10개 언어, 즉 한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로 LDS.org의 내용 전체를 제공하기 위해 일하고 있다. 교회는 경전을 포함한 추가 온라인 자료를 웹사이트 상에서 더 많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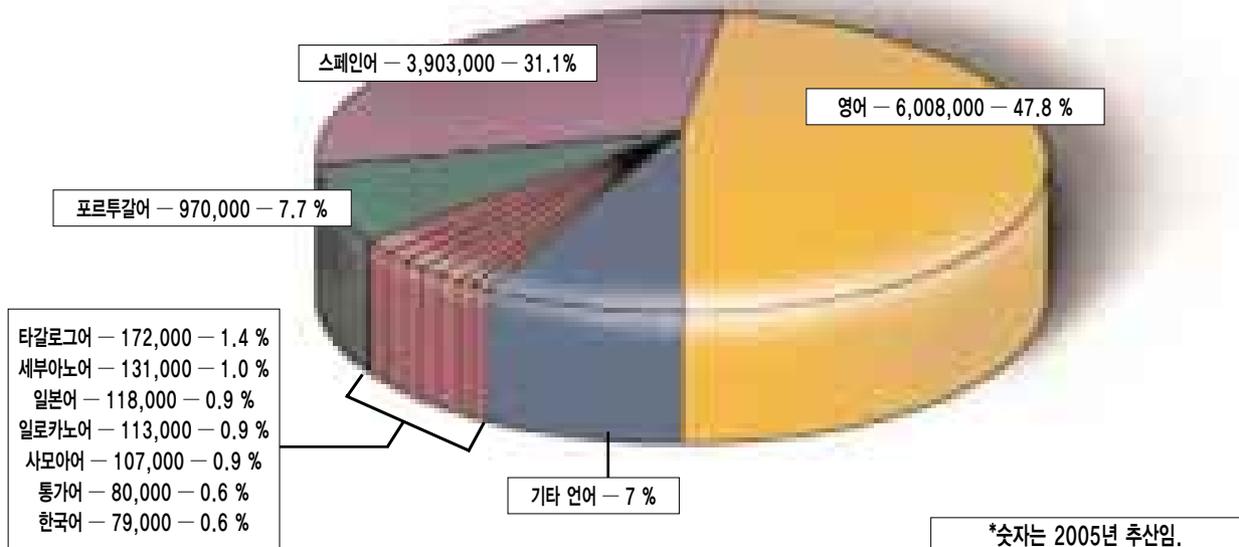
언어로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작업할 예정이다.

교회 위성 방송 시스템 또한 많은 언어로 제공되고 있다. 지난 연차 대회 위성 방송은 인터넷에서 44개 언어로 접할 수 있다.

교회는 전세계에 16개의 선교사 훈련원을 갖고 있으며 선교사들은 그곳에서 언어를 배운다. 미국 유타 주 프로보의 선교사 훈련원 교사들은 49가지 언어를 가르친다.

교회 잡지는 전세계의 회원들을 위한 또 하나의 자원이다. 리아호나는 교회의 모든 지역에 배부되고 있다. 이 잡지에는 성인, 청소년, 어린이를 위한 자료가 담겨 있으며 50개 언어로 제작된다. (발행 빈도는 언어에 따라 다름) 교회 잡지의 목적은 후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더 온전히 이해하고 구주께 더욱 가까이 가도록 돕는 것이다. ■

교회 회원들이 사용하는 상위 10개 언어*



세계 기구, 교회의 인도주의적 노력에 감사를 표하다

애비 올슨, 교회 잡지

2006년 5월의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의료 물자와 같은 즉각적인 비상 대처를 위한 것이든, 또는 매년 70개국에서 하는 40,000개의 휠체어 기증과 같이 지속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든, 교회 복지 및 인도주의 서비스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인류의 필요 사항에 대처하고 있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약한 자를 도우라.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라.’(교리와 성약 81:5)고 부탁드립니다.”라고 교회 감리 감독단의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은 2006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말했다. “저는 애정 어린 마음과 도움의 손길을 지닌 후기 성도들과 우리의 종교에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짐을 서로 지’는(갈라디아서 6:2) 헌신적인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엄청난 참화를 보고 희망이 없는 희생자들을 방문하면서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고운 마음과 도움의 손길”,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8쪽)

교회는 긴급 사태 대처 및 인도주의의 노력을 통해 전세계 곳곳에서 봉사 조직과 자주 협력하고 있다.

“여러 해에 걸쳐 교회는 같은 가치관과 목표를 갖고 있는 정부 및 비정부 단체들과 놀라운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라고 복지 서비스의 실무 책임자인 데니스 리퍼스 형제는 교회 잡지를 통해 말했다.

“교회의 인도주의적 노력은 참으로 많은 가족들에게 축복을 줍니다.”라고 리퍼스 형제는 말했다. “물론 교회의 목표는 단순히 즉각적인 필요 사항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족이 스스로

노력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자립적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의 인도주의적 노력은 식품 생산, 깨끗한 물과 위생, 보건, 교육을 포함한 자립의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006년에 교회는 베트남에서 휠체어를 배부하고, 루마니아의 홍수 피해자를 위해 구호 기금을 보냈으며, 아시아의 쓰나미 피해 지역에 장기 원조를 제공하고, 200곳의 브라질 병원에 의료 물자를 제공했으며, 또한 세계 이슬람 구호 기구와 협력하여 5월에 인도네시아를 덮쳐 수천 명의 사망자를 일으키고 수만 명의 부상자와 집 없는 사람을 남긴 진도 6.3의 지진 피해자를 도왔다.

“우리는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라고 세계 이슬람 구호 기구 이사회의 일원인 모크타르 샤키 이사는 8대 분의 트레일러 물자를 747 화물기에 실어 인도네시아로 보내는 기자회견장에서 말했다. “우리는 교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완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 최종 결과는 세상의 더욱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지진은 이들 두 인도주의 구호 기관이 협력을 했던 긴급 사태의 최근 사례이다. 또 다른 사례는 2005년에 50,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부상자 그리고 수백만 명의 집을 앗아가며 남아시아를 강타했던 진도 7.6의 지진이었다.

“후기 성도 교회가 커다란 도움을 주어 자연 재해 및 인재로 인한 수많은 피해자의 고통과 괴로움을 완화시켜 주었다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이슬람 구호 실무 책임자인 아마드 엘벤다리는 2005년에 교회 잡지에 전했다. “우리가 무슬림 공동체와 계속해서 협력해 온 것은 인도주의적 대의를 위한 커다란 도움이며 후원이자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교회는 또한 2005년 허리케인 계절 동안 주요한 재해에 대해, 특히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 및 그 밖의 남부 지방에 허리케인 카트리나 및 리타가 지나간 후 지원을 제공했다. 연방 비상 관리국 기증 책임자인 버디 켈페퍼는 교회가 청소 작업을 위해 수많은 물자를 기증했다고 말했다. “루이지애나 주는 후기 성도 교회가 우리를 위해 해 준 일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마찬가지로 미시시피 지역 자원 봉사자 실무 책임자인 마사 켈리 또한 허리케인이 지나간 후 교회가 보여 준 신속한 대처를 칭찬했다.

“저와 [교회] 사이에 있었던 모든 접촉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합니다. ... 누군가가 ‘이렇게 할 거예요’라고 말하면,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커다란 사랑으로 행해졌습니다.”

플로리다 자원 봉사자 주지사 위원회의 비상 관리 책임자인 알렉스 앰파로는 2004년에서 2005년까지 18개월 동안 여덟 차례의 허리케인이 플로리다를 강타했을 때 교회와 수백 명의 교회 자원 봉사자들이 보여 준 긴급 구호 노력은 실로 대단했다고 교회 잡지에 전했다.

“주 정부 차원 비상 관리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저는 후기 성도 교회의 자원 봉사자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껏 보아 온, 또한 제가 과거에 함께 일해 본 수많은 단체들 가운데서 가장 체계적이고 효



교회와 모크토아르 쇼키(오른쪽)가 대표하는 세계 이슬람 구호 기구는 인도네시아에 비행기로 원조 물자를 보내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의 구호 프로젝트에서 협력해 왔다.

과적인 조직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교회는 2005년 한 해에만 해도 재난 구호를 위해 157,000일의 노동을 제공했으며, 교회 복지 시설에 주어질 총 봉사일은 581,821일에 이르렀다.

허리케인 스타탄과 율마가 지나간 후에 교회 회원들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및 멕시코 남부에 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진흙 사태, 씻겨 내려간 다리, 막힌 도로 등의 장애를 극복해 냈다. 멕시코 성도들은 신속하게 모여 수천 시간의 자원 봉사를 제공했으며, 교회 건물들은 구호 제공을 위한 통제 센터 역할을 했다.

“어떤 경우에는 스테이크 센터를 대피소 및 비상 급식 센터로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루 24시간 동안 개방했습니다.”라고 칠십인이자 멕시코 남 지역 회장인 크레이그 시 크리스틴슨 장로는 교회 잡지에 전했다. “상호 부조회 자매들이 팀을 이루어 쉬지도 않고 몇새 동안 수천 명의 피해자와 자원 봉사자들을 위해 음식과 구조 물자를 제공했습니다.”

정부 관리들 또한 성도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교회의] 매우 귀중한 도움이 주목할 만한 방법으로 제공되어 우리가 비상 사태에 대처하고 또 짧은 기간 안에 정상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라고 베라크루스의 피델 에레라 주지사는 말했다.

초기 긴급 대처 이외에도 교회는 지역 사회의 재건을 도우며 세계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인도주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5년 2월, 미국 적십자사는 교회가 2004년과 2005년에 아프리카 홍역 백신 캠페인에 기금을 후원한 후 미국 적십자사 인도주의 표창을 교회에 수여했다.

1985년 이래로 교회는 전세계 곳곳에서 163개국에 상당한 양의 물자 지원을 제공했다. 교회는 식량 46,000톤, 의료 장비

6,900톤, 잉여 의류 61,000톤, 그리고 교육 물자 5,100톤 이상을 배부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도움은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또 다른 도움은 좀 더 장기적인 노력으로서 가족들이 자립적이고 또 자급적이 되도록 돕는 것이다.

“가족들이 자립적이 되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이웃에 대해, 그리고 특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지해 주는 힘에 대해 좀 더 큰 신뢰를 가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고 리퍼스 형제는 말했다.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www.providentliving.org에서 찾을 수 있다. ■

사랑하는 새로운 회원 여러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습니다. “온 지면 위에서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 ... 를 매우 기쁘게 여기노라.” 주님의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의 회원으로서 여러분은 회원에게 부여된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와드/지부에서 여러분은 교회의 다른 회원들과 우정을 쌓고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주와 같은 “선한 목자”이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걱정하시는 감독님과 지부 회장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은 여러분을 돕고 싶은 마음과 신앙으로 가득하며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축복을 가져다주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할애하는 분들입니다. 또한 걱정해 주며 도움을 주는 다른 사람들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봉사를 하면서 큰 행복과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교회 회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을 얻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놀라운 축복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침례 받기 전에 복음을 공부하며 했던,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준 바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권고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십시오. 매일 물 문경을 읽고 수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배우십시오. 배운 계명을 지키십시오. 실수하더라도 여러분의 감독님/지부 회장님이 여러분이 주님의 계명을 좀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참석하십시오.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복음에 대해 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에서 성찬 빵과 물을 취하며 침례 시 맺

은 성약을 새로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함으로써 신앙은 증가할 것이며 간증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복음,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감미롭고 훌륭하다고 느끼도록 변화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소망이 더욱 커지는 것을 느낄 것이며, 우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도록 격려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생에서 느끼는 가장 큰 기쁨은 사랑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구주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그분의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에 들어올 때 얻는 기쁨일 것입니다.

이번 리아호나 특집호에서 여러분은 교회가 여러분을 어떻게 돕는지, 주님의 교회 회원이 된 것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많은 이야기와 사례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삶을 복음을 중심으로 한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동안 도움이 될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전에 들어 보신 간증,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참되다는 간증을 우리 또한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살아 계시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최상의 축복이 여러분께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진실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고원용
카즈히쿠 야마시타

행복으로 향하는 일곱 개 발자국

“시작”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침례와 성신의 은사라는 문을 열고 들어온 하나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시작하는 새로운 생활은 선교사와 공부를 하면서 생각하고 다짐했던 것보다 더 큰 변화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 변화는 하늘 끝까지 차오르는 기쁨을 선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당황스럽고 낙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항상 기억할 것은 그 변화의 길에 서 있을 때 여러분 곁에는 다음 발걸음을 떼기를 기다리며 옆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며 도와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한 발걸음 일곱 가지를 소개합니다.



침례와 성신의 은사의 문



1. 친구 만들기

- 일요일 안식일 모임
- 토요일 상호 향상 모임
- 월요일 가정의 밤
- 평일 저녁 종교 교육원
- 여름 청년 대회, 청소년 대회
- 1년에 두 번 스테이크/지방부 대회, 연차 대회



2. 나의 자리는 어디일까

- 초등회
- 청년회
- 상호부조회
- 신권 정원회





3. 신앙 가꾸기

- 세미나리
- 종교 교육원-대학부 과정
- 리아호나와 교회 서적



4. 봉사하고 싶어요

-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이들
 - 감독/지부 회장
 - 가정 복음 교사
 - 성신



6. 영원한 나의 삶

- 가족 역사 사업
- 축복사의 축복

7. 성전

- 엔다우먼트
- 가족 인봉과 성전 결혼
- 대리 침례

5. 선교사를 사랑하나요?

- 모든 회원은 선교사입니다
- 전임 선교사
- 부부 선교사
- 와드 선교사



첫 번째 발자국, 친구 만들기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돕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모임들에 참석하면서 여러분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늘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더 알 수 있고, 나와 비슷한 경험을 이미 한 다른 회원들과 함께하며 조언과 우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 모임에 참석하며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말 그대로 여러분의 형제자매인 회원들과 더 친근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일요일 아침, 안식일 모임

안식일에 참석하는 모임은 약 세 시간 동안 세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그 중 성찬식은 우리가 하나님과 성약을 맺는 신성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물을 취하는 예배 의식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과 했던 약속, 그분의 이름과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그 약속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여러분은 매주 일요일에 성찬 의식을 하며 그 성스러운 약속을 맺습니다. 일요일에는 성찬식 이외에도 경전 공부를 할 수 있는 주일학교, 그리고 각 연령별로 분반하는 보조 조직 모임이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의 이 세 시간이 일주일 동안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생활하는데 필요한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월요일 저녁, 가정의 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조직은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을 위한 여러 가르침과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정의 밤입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에 한 자리에 모인 가족들은 함께 간단한 복음 메시지를 나누고, 가족 회의와 즐거운 활동을 즐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의 밤을 하기 어렵다면 와드/지부에서 하는 독신 가정의 밤이나 다른 가족의 가정의 밤에 초대받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왜 ‘지상의 천국’이라고 부르는지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평일 저녁, 종교 교육원

종교 교육원은 회원들이 복음을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치된 교회 기구입니다. 종교 교육원은 청소년들을 위해 각 와드/지부에 세미나리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성인 회원들을 위한 수업을 평일 저녁에 진행합니다. 또한 종교 교육원에는 독신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종교 교육원 학생회”가 있는데, 학생회 회원들은 종교 교육원에서 주최하는 독신 회원들을 위한 노변의 모임, 종교 교육원 축제, 무도회, MT 등을 직접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토요일 오후, 상호 향상 모임

토요일에는 여러분이 속한 보조 조직의 상호 향상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조 조직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자 한다면 “두 번째 선택, 나의 자리는 어디일까” 기사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상호 향상 모임은 각 보조 조직 별로 모여서 배우고 싶은 것이나 친구들과 우정을 증진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직접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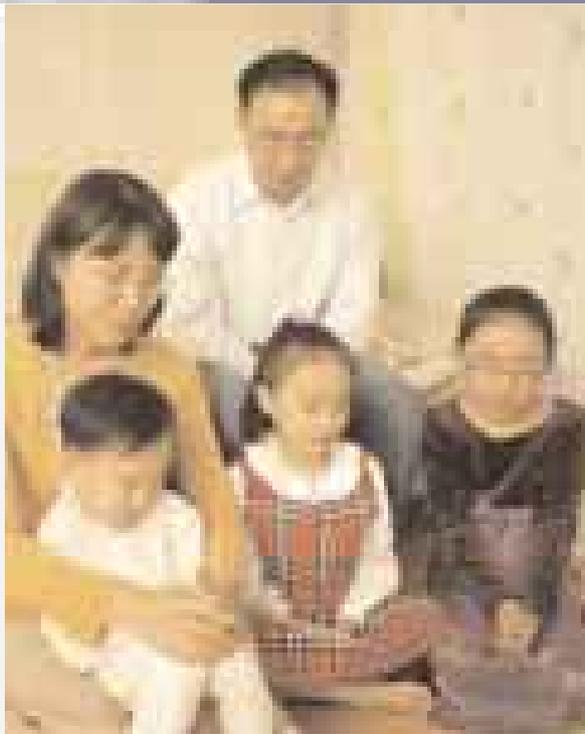
이 다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그 시간을 통해 각자가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다 훌륭한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키우며 함께하는 사람들과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상호 향상 모임이 갖는 공통점입니다. 청소년과 독신 회원들은 주로 토요일 오후에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호부조회에는 가정, 가족 및 개인 강화 모임이 있으며 교회 모임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각 지역마다 교회 청소나 식사, 축구, 소풍, 체육 대회, 활동의 날 등의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청년 대회, 청소년 대회

한 여름이 되면 청소년들은 청소년 대회에, 독신 회원들은 청년 대회에 참석합니다. 캠프 형식의 이 모임들은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으로 후기 성도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산행과 무도회, 세미나 등을 하며 우정과 신앙의 성장을 꾀합니다. 지역 별로 겨울에 이러한 모임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모든 모임의 준비는 각 지역 회원들의 손으로 이루어지며 누구든지 그 준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은, 스테이크/지방부 대회, 연차 대회

1년에 두 번은 각 지역에서 스테이크/지방부 대회가 열립니다. 스테이크/지방부는 여러분이 속한 와드/지부보다 더 큰 조직으로, 그 조직에 속한 모든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 모임을 하고 스테이크/지방부 조직 점검을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의 모임으로 연차 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이 함께하는 모임입니다. 매년 4월과 10월 첫째 주에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교회 제일회 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및 칠십인 정원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뤄지는 이 모임에서 여러분은 살아 계신 선지자가 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과 권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각 지역의 스테이크/지방부 센터에서 위성 방송으로 시청함으로써 이 모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다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화양 와드 이광복 형제

이광복 형제를 만난 것은 토요일 오후 종교 교육원에서였습니다. 말끔한 넥타이 차림을 한 이 형제에게 “평소에도 이렇게 표준 복장을 해요?”라고 묻자 “표준 복장이 뭐예요?”라고 되물었습니다. 이날 스테이크 대회가 있어서 이렇게 입었다는 대답과 함께 시작한 인터뷰에서 이광복 형제는 종교 교육원 학생회에 참석하면서 경험한 지난 학

기와 자신의 교회 생활의 목표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종교 교육원은 올해 초부터 다녔고, 학생회 모임은 2월에 있었던 MT부터 거의 계속 참석을 했죠. 처음 간 MT에서 생각보다 쉽게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워낙 학생회 친구들 성격이 활발하고 뭐든 열심히 하고 즐겁게 활동하니까 거기에 자연스럽게 흡수된 것 같아요. 이렇게 교회 사람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도 더 쉽고 제가 사용하는 말에서 은어나 비속어도 없어졌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다른 교회에 다녔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몬경이나 선지자 같이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사실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계속 교회 모임에 참석하면서 조금씩 받아들여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저에게 한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흔적이니까요.”



종교 교육원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이광복 형제

두 번째 발자국, 나의 자리는 어디일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신 이유 중 한 가지는 여러분이 발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기 성도들은 성장과 발전이라는 말을 단순히 학창 시절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온 생애에 걸친 의무이자 축복으로 받아들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각 연령과 성별에 따라 보조 조직을 조직했습니다. 이 조직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승인하신 것으로서 이 안에서 여러분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과 의무, 사명과 계획을 배우고 또한 이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초동회(만 3세~11세 사이의 어린이, 18개월~2세의 어린이는 유아반)

초동회는 누구보다도 어린이들을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린이들이 배우고 닮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어린이들은 노래와 경전 이야기를 배우고 재능을 계발하는 여러 활동을 합니다. 교회는 초동회 어린이들이 육체와 영혼의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프로그램을 교회 역원들과 부모들의 지도 아래 실행하도록 독려합니다.

청녀회(만 12세~17세 사이의 여성)

청녀회는 각 청녀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섬세한 감성을 가진 청녀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가치와 여성으로서의 고귀한 사명에 대해 배우고, 그 가치만큼 신성한 성품을 배우고 기르는 시간을 갖습니다. 청녀들의 성장을 위한 달성 프로그램으로 '개인 발전 기록부'가 있습니다.

상호부조회(만 18세 이상의 여성 및 18세 이하의 모든 기혼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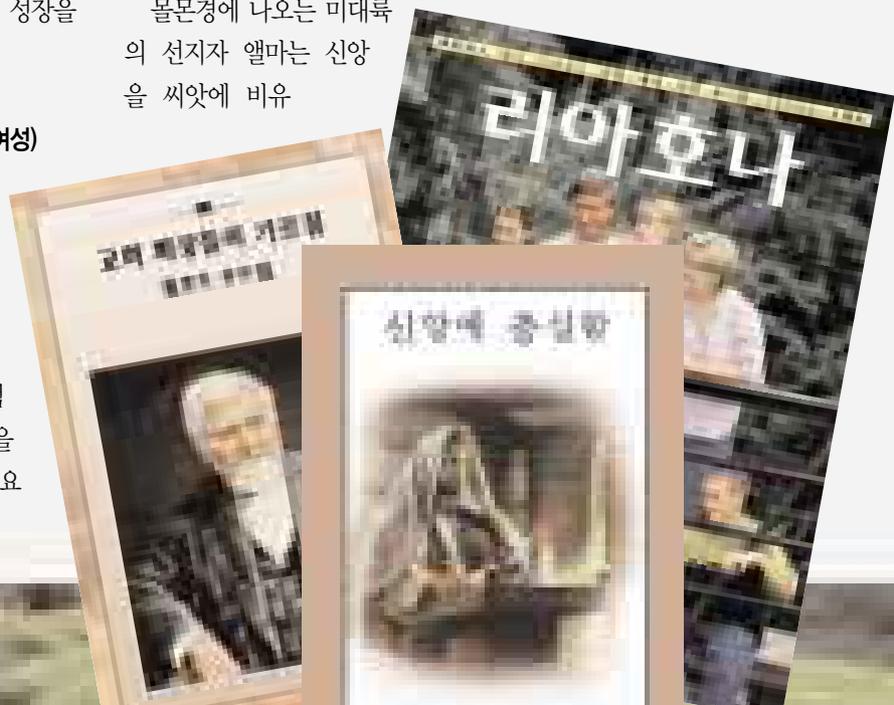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상호부조회의 목적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선지자의 말처럼 상호부조회는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이나 와드/지부 내의 연로하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돕는 일을 도맡아 합니다. 또한 가정 방문 교육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것은 선교사들처럼 두 명이 한 조가 되어 한 달에 한 번씩 와드/지부 회원들을 방문하여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신앙과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살피고 돕는 일입니다.

신권 정원회

침례, 성신의 은사, 병자 축복, 성찬 준비 및 축복 등의 모든 교회 의식은 신권을 지닌 이들에 의해 집행됩니다. 신권은 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대신 그분의 사업을 행하는 권리입니다. 신권은 합당하게 생활하는 교회 형제들에게 주어지는데, 이 신성한 권리를 신성하게 사용하여 봉사하도록 신권 정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권 정원회는 그 신권과 직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론 신권을 지닌 청년들은 아론 신권 정원회를 구성합니다. 연령에 따라 집사, 교사, 제사 신권을 받은 청년들은 각 직분에 따른 정원회에 속하여 자신의 신성한 의무에 대해 배우고 훌륭한 성장을 위해 준비합니다. '대신권'이라 불리는 멜기세덱 신권을 받은 형제들 또한 각자가 맡은 직분에 따라 정원회에 속하게 됩니다. 장로 직분을 가진 이들은 장로 정원회를, 대제사 직분을 가진 이들은 대제사 정원회를 이룹니다. 새로운 회원 중 형제들은 신권 정원회에 소속됩니다. 청소년 형제들은 연령에 따라 아론 신권 정원회에 속하게 되고, 성인 형제들은 멜기세덱 신권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수련 장로에 성임되고 합당한 준비를 거쳐 멜기세덱 신권을 받고 장로 정원회에 속하게 됩니다. 장로 정원회는 다른 보조 조직과 마찬가지로 서로를 강화하고 이웃을 돕기 위해 가정 복음 교육 프로그램을 펼칩니다. 대제사 정원회 역시 가정 복음 교육을 하며 교회 안에서 신권이 의롭게 행사되도록 회원들을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세 번째 발자국, 신앙 가꾸기

물문경에 나오는 미대륙의 선지자 엘마는 신앙을 씨앗에 비유





경전 공부를 통해 신앙을 키워가는 이겸진 형제

했습니다.(엘마서 32장) 그의 말처럼 신앙은 한 순간에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심고 싹을 틔워 나무를 키우는 것처럼, 그리고 땀의 대가로 탐스럽고 달콤한 열매를 얻는 것처럼 꾸준한 수고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데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모든 회원이 매일 해야 하는 것은 경전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만의 특권-세미나리

세미나리는 청소년들이 참석하는 경전 공부 시간입니다. 지역 사정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동이 트는 새벽에 교회나 가정에서 모여 경전에 대한 공과를 진행하며 이루어집니다. 1년에 한 과목씩 구약, 신약, 물몬경, 교리와 성약을 배우는 4년 과정이고, 매년 2월에는 과목 이수 증서와 졸업장을 수여하는 세미나리 졸업식과 청소년들의 경전 지식 실력을 겨루는 퀴즈 대회가 열립니다.

항상 열려 있는 곳-종교 교육원, 대학부 과정

서울에 두 곳, 그리고 청주, 부산, 광주에 설치된 종교 교육원은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회원들의 경전 탐구를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각 종교 교육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평일 저녁에 구약, 신약, 물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등의 표준 경전과 영원한 결혼, 가족 역사, 지도력의 원리 등 종교 교육원 교재들을 교과서로 삼아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종교 교육원 수업을 등록하면 각 경전의 이해를 돕는 보조 교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두 학기가 진행되고, 8학기를 이수하면 종교 교육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아호나와 교회 서적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대표적인 공식 잡지인 리아호나는 교회의 현재 모습을 살펴보는 가장 정확한 통로입니다. 제일회장단이 회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세계 각국 성도들의 삶과 간증, 그리고 교회 안팎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담아 매월 발간되고 있습니다. 나침반이라는 뜻을 가진 리아호나를 통해 회원들의 삶이 더욱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주변 형제 자매들의 이야

기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교회가 마련한 교회 서적들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신앙의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일 학교 시간에 교재로 쓰는 복음원리, 신권회 시간 교재인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경전에 나오는 용어를 풀이한 신앙에 충실함, 교회의 역사를 간략하게 엮은 우리의 유산 등을 와드/지부에서 서기로 봉사하는 형제들에게 부탁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전 공부는 나의 힘

마산 스테이크 사천 지부 이겸진 형제

올해 초에 침례를 받은 이겸진 형제는 사천이 아닌 진주에서 종교 교육원 수업을 듣는다고 합니다.

“침례 받고 그 다음 주에 성신의 은사와 신권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지부 회장님께서 종교 교육원 대학부 과정이란 것이 있는데 가지 않겠냐고 권유하셔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두 번 갈아타면 진주 와드에서 매주 열리는 수업에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오시는 이순철 형제님의 수업을 듣는데, 수업이 조금 어렵기는 했지만 재미도 있고 배울수록 경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일종의 학구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항상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이순철 형제님을 보면서 경상도 동쪽 끝에 있는 부산에서 서쪽 끝에 있는 진주까지 오셔서 복음을 가르치시는 그 열정과 신앙에 대해, 좋은 성품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배우고 좋은 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저는 참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했고, 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복음이 참되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제가 받은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발자국, 봉사하고 싶어요!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움직이는 기반이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 성찬식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형제들, 성찬식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주일학교 교사들, 감독/지부 회장 모두 보수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봉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실천하고 모든 생애에서 타인을 위해 봉사하신 그분을 닮을 수 있는 기회이자 축복이며, 모든 교회 회원들이 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우리는 모임에 필요한 일들, 예를 들어 찬송가를 정리하고 의자를 펴는 일을 맡는 것에서부터 이른 바 “부름”이라고 하는 가정 복음 교사나 보조 조직 회장단 등의 직책을 맡아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이들

감독/지부 회장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다면 “감독” 또는 “지부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와드/지부를 관리하는 일을 도맡아서 각 회원들이 필요한 부분을 살피고 그에 필요한 조언과 조치를 취하는 일을 합니다. 이들이 여러분에게 봉사의 임무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감독/지부 회장에게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 삶에 대한 궁금증과 고

민들에 대한 조언이 필요할 때 상담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이들은 언제든지 우리들을 성심껏 도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 와드/지부의 형제 두 사람이 찾아와 가정 복음 교사라며 만나고 싶어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여러분을 돕는 임무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매달 제일회장단의 메시지를 소개해 주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살피고 돕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가정 복음 교사로 부름을 받으면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그러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성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여러분이 원할 때 언제든지 그분의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성신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바람대로 생활한다면 우리는 항상 성신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맡은 임무를 수행할 때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진심으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성신은 좋은 느낌과 영감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얻어 현명한 방법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재미있는 일

청주 스테이크 흥덕 와드 최원창 형제

평소에도 가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친구들과 사이에서 스스로 좀 별난 사람이라 생각했다는 최원창 형제. 교회에 오니 자신의 생각이 정상이었다며 교회에서 지낸 행복했던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장로 정원회 회장인 박인규 형제님과 함께 가정 복음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부터 저희 와드 회원 열두 가정을 방문했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지만 그저 훌륭하신 동반자만 믿고 따랐습니다. 박 형제님과 함께 가정 복음 교육을 다니면서 그분의 간



가정 복음을 통해 행복을 느낀다는 최원형 형제

증과 가정 이야기를 들으며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저희가 방문 하는 분들 모두 저희를 친절하게 맞아 주시는데 그 중 김동현 형제님 댁에 갔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청주 지역 교회의 초창기 회원이십니다. 방문을 하면 따뜻하게 악수해 주시고 형제님이 겪으신 인생 이야기도 해 주셔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한번은 방문을 마치고 일어서는데 형제님이 저를 껴안아 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가득 찼던 따뜻한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드리러 가면 항상 제가 도움을 받고 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시간을 많이 빼앗겨서 학교 생활에 소홀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침례 받은 이후에 저는 학교 생활에 더 충실해졌습니다. 일요일이나 평일에 교회에 오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대신 짧은 시간을 내어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 더욱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는 장학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교회 생활은 참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발자국, 선교사를 사랑하나요?

여러분이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고 교회에 들어온 후 가장 친근하게 지내는 친구는 아마 선교사들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삶의 기쁨을 찾도록 인도해 준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든 회원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들은 매일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동료들을 선교사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영어 회화 프로그램과 교회의 여러 모임들, 가정의 밤에 초대하여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직접 보여 주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해 궁금해할 것입니다. 선교사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직접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선교사들과 함께 상의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초대하면 복음에 대한 설명과 안내는 선교사들이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선교사들이 만나는 사람들, 바로 얼마 전의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에 있는 구도자들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구도자들에게 교회를 선택한 이유와 그 이후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구도자들의 현명한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내미는 친절과 진정한 우정의 손길, 따뜻한 말 한마디와 미소가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빛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임 선교사

여러분도 그들처럼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인 독신 형제, 만 21세 이상인 독신 자매 중 합당한 사람은 전임 선교사, 즉 형제는 2년, 자매는 1년 반 동안 선교 사업만 전담하는 선교사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로 봉사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감독/지부 회장과 이에 대해 상의해야 합니다. 감독/지부 회장은 여러분이 선교사로 봉사하기에 적합한지 판단한 후,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를 알려 줄 것입니다. 그 준비 중에 필수적인 것으로 선교 사업 비용을 마련하는 것과 복음대로 생활하며 간증을 쌓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에게 “선교사 추천서”를 줄 것입니다. 선교사 추천서는 여러분이 선교사로 봉사하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신상명세와 건강검진 기록, 교회 지도자들의 추천글을 담은 서류입니다. 이것은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교회 본부로 보내지고, 그곳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분이 어디에서 봉사할 것인지 기도를 통해 영감을 구합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은 “선교사 부름장”이라는 답장을 받는데, 이 편지는 교회 회장의 서명과 함께 선교사로서 봉사할 지역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감독/지부 회장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바로 지금 즉시 감독/지부 회장에게 이야기합시다.

부부 선교사

기혼자들의 경우, 전임 선교사로서 부부가 함께 봉사하는 부부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선교 사업을 나가는 과정은 위에 나온 전임 선교사의 경우와 똑같지만 하는 일은 조금 더 다양합니다. 성전에서 성전 사업을 돕는 것이 주요 임무인 성전 선교사로 봉사할 수도 있고, 선교부에서 저활동 회원들을

방문하거나 선교부의 행정적인 업무를 돕는 선교사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젊은 선교사들과 함께 전도를 하는 선교사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종교 교육원이나 가족 역사 센터나 공보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선교 사업을 준비 중인 제주 지방부 제주 지부의 김아람 자매

와드/지부 선교사

전임 선교사로 나가서 봉사하는 것 외에도 와드와 지부에서 와드/지부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전임 선교사와 함께 와드/지부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의 가족과 친구 또는 친지를 선교사들에게 소개해 주고, 선교사들과 함께 복음 전도에도 참여하며 와드 선교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 복음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복음 토론에 참석하여 간증을 나누고 새로 침례 받은 회원들이 교회에서 잘 적응하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원들에게 신회원 토론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복음 토론을 가르치고 침례식을 준비하며 선교사들의 필요 사항을 돕는 것 또한 와드 선교사의 몫입니다.

꿈이 현실이 되다

제주 지방부 제주 지부 김아람 자매

1년 반 전에 호주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침례를 받은 김아람 자매는 지금 선교사 추천서를 작성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고 호주에 있는 교회에 나갈 때 저희 와드 선교사님들에게는 한국인 구도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도자들의 복음 토론에 많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간증을 나누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렵듯한 생각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보다 ... 라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한국에 돌아와서 진로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선교 사업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굳어졌고, 지금은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을 굳게 먹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

위 여건이 변화할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그 생각은 조금씩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교 사업을 준비하면서 아직까지는 타인에 대한 봉사보다는 제 개인적인 축복을 바라는 마음이 많습니다. 제가 선교 사업을 하면서 얻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런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경험으로 끝까지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세계 삶을 기쁘게 계획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섯 번째 발자국, 영원한 우리의 삶

회복된 복음을 통해 알게 되는 진리 중 하나는 여러분의 생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전세에서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현재의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가족과 영원히 함께할 해의 왕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삶을 이해할 때 여러분은 인생의 기쁨과 행복한 목적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삶에 대한 이해를 더하기 위해 가족 역사 사업과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역사 사업

모든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공평하게 받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돌아가신 여러분의 조상들과 가족들은 영의 세계에서 이런 기회를 얻게 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육체가 없는 이들은 침례 등의 의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조상들을 대신해서 구원에 필요한 의식을 받는 봉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봉사를 대리 의식이라 하고 이러한 의식은 성전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조상들을 위해 대리 의식을 받으려면 그들이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가족 역사 사업을 해야 합니다. 가족 역사 사업은 집안에 있는 족보나 관공서에서 얻을 수 있는 호적등본 등을 통해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과 간략한 정보를 정리하여 성전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상들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대리 의식이 집행됩니다. 각 와드/지부 또는 스테이크/지방부에는 회원들의 가족 역사 사업을 돕는 임무를 지

닌 전문가들이 있으므로 그들의 도움을 받아 가족 역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축복사의 축복

교회 지도자들 중에 “축복사”라는 부름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축복사는 합당한 모든 회원들에게 축복사의 축복을 주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자신이 속한 지파(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가문에 속하게 되는데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 그 가문의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에 대한 선언과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권고(가담긴, 인생의 지침서같은 것입니다. 축복사는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며, 이 기도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시때때로 축복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영원한 삶에 대해 생각하고 인생의 도전들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축복사의 축복을 받으려면 감독이나 지부 회장과 상의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 드릴 수 있는 일

대전 스테이크 삼성 와드 송정원 자매

선교사와 토론하던 중에 대리 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침례를 결심했다는 송정원 자매는 가족 역사 사업과 대리 의식을 받으면서 느낀 기쁨을 이렇게 전합니다.

“가족 역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와드에 함께 다니시는 이향복 형제님과 이종일 형제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요일마다 교회에 한 시간씩 일찍 가서 PAF(가족 역사 사업을 돕는



가족 역사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송정원 자매와 아들 김재민 형제

함은희 자매가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만든 구원의 계획 그림책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조상의 명단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프로그램을 배우고 저희 부모님 이름을 성전에 제출하는 것을 배웠어요. 사실 선교사들과 만나기 딱 1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항상 상처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든 게 끝나 버리면 ... 이런 생각이 아픔이 되었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자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리 의식에 대해 들었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이름을 성전에 제출하고 대리 침례를 받으러 성전에 갔습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대리 침례를 받으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또 의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죽은 사람까지도, 단 한 영혼까지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시구나 ... 생각하며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계획

제주 지방부 제주 지부 홍수경 자매

영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서 동생에게 무심코 혹 선교사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 희망을 얻었다는 홍수경 자매와 딸 정다솔 자매

가 오거든 전화번호를 받으라고 이야기한 후 정말 3일만에 선교사가 동생의 집으로 찾아와 교회를 알게 되었다는 홍수경 자매는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을 때의 느낌을 이렇게 말합니다.

“제주 지방부에는 축복사로 봉사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대리 의식을 받으러 서울에 있는 성전에 갔을 때 지부 회장님의 소개로 수원 스테이크 박병규 축복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말씀하시는 기도를 들으면서 신기하게도 내용들이 머릿속에 스며들듯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전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전세와 그 밖에 여러 가지 제 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존재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계획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된 후 저는 제 딸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번째 발자국, 주님께 거룩함-성전

성전은 영원한 효력을 갖는 여러 가지 의식들이 집행되는 장소입니다. 이 영원한 힘을 부여하는 의식들은 회원들의 신앙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성스러운 약속 맺기-엔다우먼트

엔다우먼트는 '은사'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말 그대로 이 의식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의롭게 생활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와 맺는, 성약을 맺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침례 받은 지 1년이 지난 합당한 회원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 가려면 성전 추천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감독/지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지방부 회장과 접견을 하여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로움과 합당성을 인정받은 후에 지도자들이 발급해 줄 것입니다.

영원한 가족을 꿈꾸며-가족 인봉과 성전 결혼

성전에서 행해지는 성전 결혼은 죽음 이후에도 남편과 아내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축복을 줍니다. 단, 이 축복은 성약대로 하나님과 배우자에게 충실한 사람들에게만 실현될 것입니다. 성전 결혼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와 인봉되어 있어 죽음 이후에도 함께하는 영원한 가족이 됩니다. 이미 결혼을 한 후에 침례받았거나 성전 결혼을 하지 못한 가족은 가족

인봉 의식을 통해 자녀와 배우자와 영원한 가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의식들은 엔다우먼트를 받은 후에 받을 수 있으며 가족 인봉을 받는 어린아이들은 만 8세의 경우 임시 성전 추천서를 받을 수 있고, 그보다 어린 아이들은 추천서 없이 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 되기까지 기다리지 마세요-대리 침례 및 확인 의식

조상을 위한 대리 침례 및 확인 의식은 침례받은 지 1년이 넘지 않아도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성전 의식입니다. 단, 이 경우에도 감독/지부 회장과 접견을 하여 대리 의식만을 위한 제한된 성전 추천서를 매번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의식들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처럼 깨끗하고 순결해지는 느낌을 직접 느껴 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감독/지부 회장과 이야기하면 됩니다.

영원한 가족을 꿈꾸며

강릉 지방부 원주 지부 정병일 형제, 함은희 자매 부부

미국 유타 주에 잠시 여행을 갔다가 템플스퀘어를 방문했을 때 처음 교회를 접한 함은희 자매는 여행에서 돌아온 뒤 남편 정병일 형제와 함께 2년 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랜 시간 참된 종교를 찾아온 함 자매와 아내의 의로운 소망을 존중하여 함께한 정 형제 부부가 복음 안에서 이루고 꿈꾸는 행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번 11월에 가족 인봉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고 나서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봤는데 솔직히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앙을 아름답게 가꾸고 있는 정병일 형제와 함은희 자매 부부

저희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하는 것 말입니다. 그 마음에서 가족 인봉에 대한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11월까지 저희는 가정의 밤 시간에 공과로 성전 준비반 교재로 쓰이는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함이라는 소책자를 공부하기로 계획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꿈꾸는 미래는 세 식구가 손잡고 함께 교회에 가고 건강하게, 충실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복음이 지닌 평화

전주 스테이크 전주 와드 오영섭 형제, 이영화 자매 부부

지난 1월에 두 자녀와 인봉을 받은 오영섭 형제와 이영화 자매가 침례의 물가로 다가설 수 있었던 것은 말 그대로 가족의 힘이었습니다. 이영화 자매는 침례를 받고 나서 겪은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남편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막내 딸 경미가 선교 사업에서 귀환하고 나서 이제 엄마 아빠도 함께 교회에 가자고 말하면서 제가 먼저 침례를 받았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고 과음 때문에 가족들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생활을 하고 있던 남편이 과연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저의 큰 의심이자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걱정과 달리 제가 침례받은 지 석 달 뒤에 술을 끊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2년 여가 지난 지금, 남편은 새벽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경전을 읽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가 처음부터 쉽게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 교회가 정말 참된 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복음으로 남편의 모든 것이 변하면서 가족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모릅니다.” 이런 아내의 말에 멋쩍게 웃는 오영섭 형제는 지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간증을 이렇게 전합니다.

“예전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미안한 마음이 종종 듭니다. 매일 아침 가족이 함께 모여 경전을 읽고 함께 하는 기도가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모릅니다. 평소에 못했던 말도 기도로 서로를 배려하는



지난 1월 가족 인봉을 받은 오영섭 형제, 이영화 자매 가족. 왼쪽부터 오경미 자매, 오영섭 형제, 이영화 자매, 오경권 형제

말과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행복해집니다. 성전에서 인봉을 받고 이제 저희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삭막한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서로를 아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이 참 큰 축복입니다.”



이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형제자매님들의 신앙이 아름답고 튼튼한 나무로 자라 꽃피울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 있는 교회의 여러 기구들을 소개합니다.

1. 성전

주님의 사업의 핵심이 되는 주님의 집, 성전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이곳에서 대리 침례와 엔다우먼트, 그리고 성전 결혼 등의 의식을 받고 있습니다. 성전 추천서가 있는 회원들은 모두 이곳에 오실 수 있습니다.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500-23 (신촌)

전화: 02) 334-9100, 332-9526

의식 시간

대리침례(사전 약속): 토요일 오후 3:30

예비의식(사전 약속): 화, 금 오후 1:30, 7:00

엔다우먼트: 매주 화, 수, 목, 금

오전 10:00 (수요일 6:00)

오후 1:30, 2:30, 3:30, 7:00,

7:20

매주 토요일

오전 6:00, 8:00, 10:00

오후 1:30, 2:30, 3:30

2. 가먼트 센터

서울 성전 안에 위치한 가먼트 센터는 교회 서적과 교회 DVD, 교회 음악 CD, 교회 사진 자료, 그리고 엔다우먼트를 받은 회원들이 사용하는 가먼트와 기타 물품을 판매합니다.

위치: 서울 성전 안쪽에 위치한 2층 건물의 1층

운영 시간: 화~금 - 오후 4:30~7:30 (공휴일 제외)

토요일 - 오전 9:30~오후 4:30

(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조정됨)

3. 한국 관리 본부

한국 관리 본부는 교회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회원들을 위해 출판물을 번역, 발행하고 재정과 시설물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이곳에 개인적으로 전화하여 경전이나 리아호나 등의 교회 책자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서기 또는 리아호나 신청을 담당하는 도서 책임자를 통해 물품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전화: 02) 2232-1441, FAX: 02) 2235-1395

근무 시간: 월~금 오전 8:30~오후 5:30

4. 선교부

전국 각 지역에는 전임 선교사들을 관리하고 교회 선교 활동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선교부가 있습니다. 친구나 친척 등 교회에 관심 있는 주위 사람들을 해당 지역의 선교부와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무료 영어 강좌와 토론 등에 관한 문의나 신청도 선교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대전 선교부 대전 우체국 사서함 38호,

042) 628-1482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

부산 선교부 부산 동래구 우체국 사서함 73호,

051) 552-7011 (경상도와 제주도 지역)

서울 선교부 서울특별시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210호,

02) 734-3653 (서울 동부와 강원도 지역)

서울 서 선교부 서울특별시 송파 우체국 사서함 31호,

02) 409-4164 (서울 서부와 경기도 지역)

5. 선교사 훈련원

선교사 훈련원은 전임 선교사 부름을 받은 선교사들이 복음 전파에 필요한 기초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3주간의 훈련 기간 동안 선교사들은 복음 토론 교수법을 배우고 그 후 각자의 임지로 가게 됩니다. 전세계 13개 선교사 훈련원 중 한국 선교사 훈련원은 서울 북 스테이크 신촌 와드 내에 있습니다.

위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00-18

연락처: 02) 336-5373

지역 단 신

자세한 사항은 www.ldschurch.or.kr 참조

6. 종교 교육원

전국에는 다섯 개의 종교 교육원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 종교 교육원에 강의 시간 및 강의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광주 종교 교육원	광주 동구 충장로 4가 34번지 연락처: 062) 224-4535
부산 종교 교육원	부산 연제구 거제 1동 15-18 연락처: 051) 862-9415
서울 동 종교 교육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 2동 274-14 연락처: 02) 928-0033
서울 서 종교 교육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500-18 연락처: 02) 336-1347
충부 종교 교육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155-8 연락처: 043) 271-9415

7. 교회 웹사이트

교회는 발전하는 인터넷 환경에 발맞추어 교회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식 사이트는 <http://www.lds.org>입니다. 영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교회 소개와 관련 자료 그리고 음악과 사진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공식 사이트는 <http://www.lds.or.kr>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소개 및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불어 한국 교회의 지역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청각 자료와 연차 대회 말씀, CES 노변의 모임, 경전듣기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전 스테이크
스테이크 여름 캠프
- 마산 스테이크
청소년 대회
- 부산 서 지방부
초등회 합동 활동의 날
- 서울 스테이크
중앙 농아 지부 대회
허해진 자매 '고교 정보능력 경진대회' 대상 수상
청년 대회
스테이크 대회
- 서울 동 스테이크
청녀 야영
청년 대회
-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스테이크 대회
22년만에 스테이크 회장에서 해임된 손승주 형제의 간증
- 서울 북 스테이크
청년 대회
일산 와드 헌납식
신촌 와드 수해 복구 봉사
신촌 와드 진경섭 형제 모범 공무원 표창
- 순천 지방부
지방부 대회



청년들이여 찬송을 드높여라!

청년들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자 계획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준비됨

가을이 저물어 가고 겨울의 첫 바람이 불어오는 11월, 한 발걸음 대전에 영혼을 기쁘게 하는 노래가 울려 퍼진다. 11월 25일 오후 3시 대전 우송 예술 회관에서 열리는 '전국 청년 음악제'는 이 땅의 청년들이 서로의 간증과 사랑을 노래와 연주로 표현하는 축제의 시간이다. 매년 갖게 될 전국 청년 축제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음악제는 중부 종교 교육원의 청년들이 준비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음악제가 청년들의 자발적인 준비와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후기 성도 청년들만의 새롭고 특별한 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으로 뚝뚝 뭉친 중부 종교 교육원의 청년들은 매주 이어지는 준비 모임 속에서도 기쁜 웃음을 감추지 못한다.

청년들의 열과 성을 바탕으로 준비되고 있는 음악제의 제목은 '줄리엣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어느 계절에 속해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 후기 성도 청년으로서 갖게 되는 고민과 시련을 극복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성립해 가는 과정을 음악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총책임 맡고 있는 중부 종교 교육원을 제외한 전국의 네 개 종교 교육원은 사계절의 느낌을 잘 드러내는 음악 발표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순수하고 발랄한 봄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서울 서 종교 교육원. 서울 서 종교 교육원의 청년들은

기악과 함께 어린이 찬송가 두 곡을 연습 중이다.

여름은 서울 동 종교 교육원이 맡아 청년들의 젊음과 열정, 그리고 사랑을 시원하게 표현할 계획이다. 준비한 합창곡 외에 난타 공연을 연습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돌아봄, 고요 그리고 성숙의 계절 가을은 부산 종교 교육원이 준비하고 있다. 대구 지역의 합창과 더불어 '이야기가 있는 콘서트'를 통해 조셉 스미스의 순교를 표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겨울은 광주 종교 교육원에서 맡아 깨달음과 봄을 기다리는 즐거움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주 스테이크의 합창과 함께 준비하고 있는 '리듬 퍼포먼스'는 음악에 안무를 곁들이는 형식으로 엘마 2세의 개심을 표현할 계획이다.

모임 전체를 주관하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부 종교 교육원의 청년들은 뮤지컬 형식의 합창과 각 계절을 표현하는 영상을 준비하고 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전국의 수많은 청년들의 열의와 희생, 그리고 봉사로 준비되고 있는 이번 '전국 청년 음악제'는 모든 이들의 영혼을 기쁘게 할 훌륭한 시간이 될 것이다.

2006 전국 청년 음악제

연제: 11월 25일 오후 3시

어디서: 대전 우송 예술 회관

누가: 한국의 모든 청년 독신 회원과 구도자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해외 1명



이병길 장로
수원 스테이크
안성 지부
뉴욕 남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강릉 지방부

동해 지부 회장: 신기현(전임: 인진교)

강릉 지부 회장: 박은수(전임: 어윤천)